

정 병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Flower’ 이미지를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 넥타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섬유디자인전공

박 지 완

논문개요

우리는 디자이너들이 연구하는 갖가지 형태와 칼라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무한한 영감의 원천 중 하나는 바로 자연이다. 하늘과 꽃, 그리고 나비와 바다 등 끝없이 펼쳐져 있는 자연은 이제 패션계를 위한 오마주(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이다. 그 중 텍스타일이나 패션업계전반에 걸쳐 ‘꽃’에게 보내는 지지는 매우 열렬하다. 끝도 없이 발달하는 과학과 기계 문명에 시달리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함을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간혹 화사하고 화려한 floral문양의 옷과 악세서리를 착용함으로써 경기 침체로 인해 저하된 기분의 상승 효과를 얻기도 한다.

본 연구자는 그러한 간절함을 Ecology Life(자연의 향수)라는 테마를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자연물 중에서도 꽃의 형태와 이미지를 이용해 사실적으로 또는 추상적인 패턴으로 벡타이에 표현해보았다.

더욱이 향기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꽃’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활용하여 후각적 향이 아닌 시각적 향기로의 꽃 패턴으로 개개인의 로맨틱한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생활 속에 지친 영혼들이 자연의 향내에 삶의 애환과 인고의 시간을 잠시나마 잊고 휴식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작업에 임했다. 또한 꽃의 유연한 식물줄기의 형태를 부드럽고 화사한 이미지로 표현했으며, 꽃에서 배어 나오는 아름다움과 우아한 향취를 보는 즐거움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번 작품들은 그동안의 본인의 삶에서 매우 큰 영감의 모티브가 되어왔던 꽃에 대한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뜻 깊고 흥미로운 작업이 되었으며, 따뜻하고 화사하고 찬란하기까지 한 플라워 벡타이를 통해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II. 본론	5
1. 이론적 배경	5
1) 현대인의 삶에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향기	5
2. 형식적 배경	9
1) 재료적 측면	9
2) 표현적 측면	14
3) 내용적 측면	17
III. 작품제작 및 분석	26
1. 작품제작의도	26
2. 넥타이 제작방법	29
3. 작품설명	36
IV. 결론	57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순수함으로의 초대	37
【작품 2】 순수함으로의 초대	37
【작품 3】 순수함으로의 초대	38
【작품 4】 순수함으로의 초대	38
【작품 5】 순수함으로의 초대	39
【작품 6】 순수함으로의 초대	39
【작품 7】 우아함으로의 초대	42
【작품 8】 우아함으로의 초대	42
【작품 9】 우아함으로의 초대	43
【작품 10】 우아함으로의 초대	43
【작품 11】 우아함으로의 초대	44
【작품 12】 우아함으로의 초대	44
【작품 13】 감성으로의 초대	46
【작품 14】 감성으로의 초대	46
【작품 15】 감성으로의 초대	47
【작품 16】 감성으로의 초대	47
【작품 17】 감성으로의 초대	48
【작품 18】 감성으로의 초대	48
【작품 19】 즐거움으로의 초대	51
【작품 20】 즐거움으로의 초대	51
【작품 21】 즐거움으로의 초대	52
【작품 22】 즐거움으로의 초대	52
【작품 23】 즐거움으로의 초대	53
【작품 24】 즐거움으로의 초대	53
【작품 25】 즐거움으로의 초대	54
【작품 26】 즐거움으로의 초대	54

도 목 차

- <도 1> 다카다 겐조 향수광고
- <도 2> 다카다 겐조 패션쇼사진
- <도 3> 기모노 패턴
- <도 4> 메트로 섹슈얼
- <도 5> 레오나드 벡타이
- <도 6> 보테니컬 디자인
- <도 7> 화조화
- <도 8> 레트로 무드
- <도 9> 꽃사진
- <도 10> 정밀묘사화
- <도 11> 강연사
- <도 12> 메탈사
- <도 13> 벨벳사
- <도 14> 능직(Twill)
- <도 15> 주자직(Satin)
- <도 16> 평직(Plain)
- <도 17> 바스켓직(Basket)
- <도 18> 헤링본(Herringbone)
- <도 19> All over
- <도 20> Dot
- <도 21> Stripe
- <도 22> Solid
- <도 23> One point
- <도 24> Check
- <도 25> Paisley
- <도 26> Floral
- <도 27> Geometric
- <도 28> Neo - romanticism
- <도 29> Neo - baroque
- <도 30> Neo - luxury
- <도 31> 2002 F/W 칼라 맵
- <도 32> 2002/03 Men's 칼라 맵
- <도 33> 2002 F/W 제안칼라

I. 서론

1. 연구 목적

넥타이는 더 이상 격식만을 위한 악세서리가 아니다. 넥타이 하나가 개성과 감각을 시각적으로 표출해주는 패션소품인 것이다. 비즈니스 웨어의 중요한 포인트 악세서리인 넥타이는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체 의복의 느낌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악세서리가 된다.

디자이너들은 상상력 속에서 창조적 디자인을 열망하고 새로운 디자인에 생명을 불어넣어 소비자에게 다가가기를 희망한다. 창조적 디자인의 산물인 넥타이는 향기를 머금은 채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사람의 감성을 향으로 나타낸 것이 향수라면 보여 지는 시각적 악세서리인 넥타이를 통해 꽃의 향기를 표현하는 것이 이번 작품들의 컨셉이다. 또한 경직되어 있는 넥타이에, 여성스러운 감각을 지닌 Elegance & Luxury 성향의 플라워디자인을 꾸뛰르적 정교함의 New Romantic Dandyism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유로운 감성표출로의 넥타이디자인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착용자의 정갈한 모습에서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즉, 작은 부분이지만 시각적으로 착용자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적인 자연, 특히 꽃을 모티프로 한 아이템을 시도하는 건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화려함을 통해 패션 리더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작품의 키포인트다.

마음을 치유하는 디자인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길을 걷는 직장인들 속에서 매번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는 아마도 많게 혹은 적게 스트레스라는 유행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신문에서 ‘스트레스’라는 말이 일본에서 가장 익숙한 외국어로 1위를 했다는 기사를 접한 일이 있다.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씁쓸함을 느끼게 하는 짙막한 기사였다. 아마도 이같은 결과는 직장생활을 삶의 중심으로 여겨온 많은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초를 다투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런 복잡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불안감과 강박관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디자인들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에 발 맞춰 마음을 치유하는 아니 치유해 준다는 디자인과 운동, 음악, 아로마 향기요법들이 속속들이 눈에 띄고 있다. 이중에서도 후각적인 아로마테라피는 시각적인 꽃의 향기로움을 통해 스트레스에 찌든 우리들의 마음을 기분전환 시켜주고자 하는 것이다. 20세기가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원래 디자인이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과거의 디자인이 투박하고 일차적인 것들에 눈과 마음을 즐겁고 풍요롭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의 디자인은 타 물체와의 차별성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디자인이 경쟁력인 시대에 개개인의 감성을 자극하여 웃음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디자인이야말로 작게나마 생활의 시각적 활력소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심한 터치와 감성적 디자인에 열광하는 모습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으며, 내일은 또 어떤 디자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될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킨 키워드 웰빙(Well-being)¹⁾은 패션, 뷰티, 레저, 스포츠, 푸드 등 생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 그대로 Well(건강한, 만족한, 안락한) Being(인생)을 살자는 가치관을 표방한다. 따라서 그들은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중시하고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며 행복

1) 웰빙 : 사전적 의미는 복지 안녕 행복.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코드로 미국 특히 뉴욕에서 건너온 생활방식이다. 몸과 마음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영위하고자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코드로 해석되고 있다. 아로마테라피 라이트테라피등 심신을 안정시키는 자연요법에도 관심이 많지만 그 외에도 자기 나름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면 '웰빙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을 위해 환경을 개조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기존의 생활방식에서 나 자신의 만족감과 행복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합리적 생활방식인 ‘웰빙라이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즉, 본 연구자는 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 내면화된 정신세계의 안식처로서의 Originary Nature를 선호함으로써 삶의 재충전이라는 즐거움의 휴식처로의 자연, 그 중에서도 Flower의 향기에 포커스를 맞춰 작업에 임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향기’는 잊고 있던 감각의 세계를 떠오르게 한다. 특히 정서적으로 끌어들이려는 강한 흡인력으로 인해 향은 존재하고, 또한 가장 풍요롭고도 복잡한 감각의 경험 중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본 연구는 보이지 않는 향기의 위력, 비 오기 직전 땅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흙내음, 우거진 수풀 속에 들어섰을 때의 그 신선함, 동틀 무렵 대기의 싸한 공기, 연인의 어깨에 기댔을 때 그의 목 언저리에서 희미하게 풍겨나는 살내음 등 삶의 순간순간 만날 수 있는 작은 즐거움들을 플라워넥타이를 통해 보는 향기로 재현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꽃의 형상에서 보여 지는 아름다움과 꽃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추억들의 감정을 ‘향기’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디자인으로 표현해냄으로써 창조적인 넥타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번 작품들의 컨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디자이너는 독특한 ‘컬러’와 ‘동양적인 라인’으로 패션에 활력과 즐거움을 더한 ‘다카다 겐조(Takada Kenzo)’²⁾(도 1,2)이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즐거움과 명량함을 불러냈으며 일본의 기모노에서

2) KENZO : 신비감이 감도는 컬러로 마치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해 낸 듯 생동감 넘치는 꽃무늬를 의상에 그대로 옮겨놓음으로써 다소 보수적이었던 70년대 파리 패션계를 일렁이게 만든 장본인. 그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색채의 세계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왔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와 동양적인 선의 명쾌함을 인식시킨 디자이너이다.

차용한 라인은 몸에 자유로움을 선사했다. 그의 철학은 언제나 밝고 즐거우며 자유로움이 담겨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향기와 꽃 또한 밝고, 즐거우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느낌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 시대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자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복고적이면서도 우아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을 선보이게 되었으며, 전쟁, 테러, 세계화에 대한 반발 등 사회이슈에 영향을 받아 '웰빙'이라는 트렌드를 부추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로 현대인들은 점차 내적인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며, 만족스러움과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로인해 그동안의 본인의 삶에서 매우 큰 영감의 모티브가 되어왔던 플라워에 대한 사랑을 '향기'라는 주제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편안함과 로맨틱함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의 기본바탕인 바로크³⁾시대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술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통한 디자인 연구에 주력하였으며, 생동감 있는 꽃 표현을 위해 사진(도 9)과 정밀묘사화(도 10)를 수집해 형태를 파악하여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또한 오랜 기간 남성들의 개성표현의 실현도구가 되어 준 넥타이가 하나의 천 조각이 아니라 남성복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식품인 만큼 고급스러운 100% 실크사를 이용한 섬세한 선염(先染)⁴⁾으로 제작하였으며,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어 내야하는 상품인 만큼 시대적 유행칼라와 소재를 믹스해 세련미를 더하고자 하였다. 연령별로 꽃 모티브의 사이즈와 칼라의 배색을 달리하여 상품가치를 부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상업성을 기본으로 하는 텍스타일 디자인에 작품적 예술성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넥타이의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면에서 '로맨틱한 향기로의 초대' 라는 컨셉을 통한 다채로운 플라워 디자인의 넥타이를 선보이고자 하였다. 그로인해 복고적이면서도 우아하고 화려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며, 로맨틱한 플라워 넥타이를 통해 달콤한 꽃향기와 아련히 피어나는 아지랑이의 봄내음을 느끼듯 기분 좋은 곳으로의 작은 여행을 떠나고자 하였다.

3) 바로크 : 17,18세기 유럽,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유행한 그림, 건축, 조각, 문학, 음악, 장식미술 등의 한 양식.

4) 선염(先染, Yarn dyed fabric) : 직물로 짜기에 앞서 먼저 실에 색을 염색하는 방법을 말함.

II.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현대인의 삶에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향기

남자 패션에서 있어서 넥타이는 자기 자신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타이는 패션전체를 모아주고 조화롭게 매치 시켜주는 남자 액세서리의 포인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어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기하면 꽃향기를 빼놓을 수 없다. 1그램의 향수를 얻는 데는 수백송이 꽃이 필요하듯 실제로 꽃이 없었다면 아마 향수도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신선한 향기 쪽을 선호하며 내성적인 사람은 부드럽고 동양적인 향기를 선호하고 기분변화가 심한 사람은 파우더리(가벼운 느낌)꽃향기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한다.

'2002, '2003 S/S 트렌드의 화두는 단연 “꽃”이었다. 우리에게 화사한 느낌을 전달할 뿐 아니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꽃’이다. 여성복에서 플라워 패턴은 사이즈나 종류가 더욱 과감하고 다양해졌다. 봄이면 늘 등장하는 꽃이지만 잔잔한 꽃무늬, 나뭇잎, 하와이언 스타일에 나비까지 가세한 것이다. 게다가 리본과 빅 러플, 풍부한 셔링과 만난 쉬폰 소재는 볼륨감과 실루엣을 동시에 만족시켜 로맨티시즘을 더욱 부추겼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내추럴리즘과 더불어 남성복에도 큰 영향을 미쳐 로맨틱한 스타일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논문자는 현대인들이 꿈꾸는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플라워를 디자인 모티브로 선정해 생활의 윤택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웰빙’은 이제 몸과 마음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영위하고자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코드로 해석되고 있다.

사람들은 점차 아로마테라피, 라이트테라피⁵⁾등 심신을 안정시키는 자연요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자기 나름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끼니마다 유기농을 먹고, 저녁마다 요가를 하고, 주말마다 온천을 다니는 것만이 웰빙이 아니다. 말 그대로 존재(being)의 안녕이자 완성이다. 즉, 자기 스스로의 만족스러운 삶으로,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하자는 웰빙! 빨리 빨리 문화와 과도한 업무 등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인들의 “잘 먹고 잘사는 방법“을 가장 잘 표현 해주는 것이 웰빙 인 듯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며 그에 따른 일상생활의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꿈꾸는 이들을 위한 제품들의 판매가 호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넥타이가 이러한 트렌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생활과 함께하는 작은 악세서리를 더 이상 걸치레만이 아닌 개성을 표현하는 미의식으로써 진지하게 바라본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향을 표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잘사는 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등의 장신구류는 의생활에 있어 가장 밀접한 패션 소품들이다.

특히 넥타이는 남성의 개성적인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인데, 정장의 단조로운 직물과 복식으로 개성적인 변화를 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넥타이는 착용자 이미지를 대변해 주는 유일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 소품 중 유행 흐름이 가장 빠른 편이다.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패션소품으로서의 넥타이에는 삶의 질에 관한 소망이 미적, 감성적, 사치적인 개념으로만 표현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자연추구적인 디자인으로 편안함, 정신적 순수함을 강조함으로써 아름다움을 향한 인

5) 라이트테라피 : ‘빛이 있으라(Let there be light)’ 성경의 첫마디에 나오는 말이다. 빛은 물과 더불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연의 에너지다. 100여년 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며 태양의 빛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현대의 여러 치료약물이 개발되기 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빛은 각종 질환 치료에 활발히 사용되었다. 1930년대 후반 닥터 롤리어(Rollier)의 스위스 레이션(Leyzin) 병원은 태양을 이용한 라이트테라피(Light therapy)로 한 시대를 풍미하기도 하였다. 빛은 신체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밝은 빛은 기분을 조절하며 밝게 만드는 뇌의 세로토닌 활성도를 높여주므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간의 소망을 표출해내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화려한 이미지의 플라워 넥타이를 맨 남성들이 그들의 경직된 삶에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향기로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러한 관점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표현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향의 역할로서의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 설명되어진다.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란?

아로마테라피	=	‘아로마(aroma)’	+	‘테라피(therapy)’
(aromatherapy)		그리스어인 ‘향신료(spice)’에서		‘치료’의 개념을 가진
		파생된 말로써 ‘향기’를 의미		트리트먼트(treatment)를 의미

‘기쁨의 향기’ 라는 뜻의 아로마(aroma)와 ‘치료법’이라는 뜻의 테라피(therapy)를 합성한 말로 여러 종류의 꽃이나 나무로부터 추출한 향이 나는 순수 식물오일(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고, 피부의 미용 및 노화억제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자연치료법이다. 특히,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임으로써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체 의학으로까지 각광받고 있다. 더불어 부작용이 적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향기요법은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오일인 Essential oil(정유)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자연의학의 한 형태이다. 또한 신경을 자극시켜 주고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이완시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인간이 자연을 적절하게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아로마테라피의 원리를 기본으로, 끊임없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현대인에게 보는 즐거움을 통한 작은 치유의 개념으로써 ‘향기’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생활치료법으로서의 개념이 작품의 주제와 일맥상통하였다.

또한 향기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고 치료효과를 얻는 것처럼, 우

리 눈을 통해 아름다운 꽃의 화려함을 보면서, 예민한 신경계에 편안함을 주는 아로마테라피의 특징처럼 잠시나마 피로를 잊고 기억저편의 향기에 대한 개개인의 추억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작업에 임했다.

이번 작품 속의 꽃들의 세계는 참으로 다양한 물감을 풀어놓은 것만 같다. 각각의 꽃들은 ‘나를 보아주세요’라고 외치듯 서로 모양이 다르고 향기도 다르다. 소박하면서도 풍성한 느낌의 국화, 아기자기한 솜털 같은 안개꽃들, 봄이면 이름 모를 들꽃들도 꽃을 피우고 향을 날려 나비와 벌들을 불러모은다. 비바람과 폭풍우에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는 자연의 꽃과 풀들, 그 자연의 향기에 나는 취하고 그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게 된다. 소나무의 푸른 솔 향기에, 바위 끝에 피어난 작은 꽃의 향기를 그리워하는 도시인들에게 감성과 유연성, 인간적인 면을 추구한 플라워디자인으로 다가가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꽃의 향기를 벡타이에 표현해 바쁜 도시 생활에서 자연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향기로움을 선물하고자 한다.

즉, 이번 벡타이 작품들은 로맨틱한 꽃 디자인과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만남을 주선한 초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시각적 향기와의 만남을 일상에서의 친숙한 꽃을 소재로 즐거움과 순수함을 표현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서적인 치료의 효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었으며 때로는 수채화처럼, 유화처럼, 파스텔화처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향기로 다가오는 꽃들을 만나보고자 한 것이다.

2. 형식적 배경

1) 재료적 측면

이번 논문의 작품들엔 꽃을 모티브로 한 환상적인 로맨티시즘이 물씬 풍긴다. 이러한 부드러운 로맨틱함을 가장 잘 표현하면서 현 넥타이 시장에 주류를 이루는 소재는 실크임에 틀림없다. 물론 면이나 모직류 또는 가죽 같은 소재도 종종 쓰이지만 전문가들이 이른바 '손'이라 부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고도 섬세한 감촉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단연 실크라 할 수 있다. 천을 쓰다듬을 때 전해지는 달콤하면서도 은밀한 감촉은 어느 정도는 실크의 심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대개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소재로 만들어지는 선염 실크넥타이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가장 격식있고 세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에 대한 예술성은 물론 이를 천 위에 실현시키는 수공업자나 직조공의 정밀성, 실 제조과정에 참여하는 장인이나 공업기술의 수준 등 모두가 갖추어 있을 때 최고의 넥타이가 탄생할 수 있다.

구매자들의 행위와 태도가 부르주아의 풍요로운 감성으로 돌아가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제품 속에서 “고급스러움”의 개념을 다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명품에 대한 선호를 봐도 알 수 있는데 클래식한 브랜드의 우아하고 격조 높은 상품의 구매를 원하며 “구매행위”를 통해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임스 다웬은 <영국의 멋 Chic Anglais>이라는 책에 “신사의 넥타이는 모름지기 실크로 짠 것이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⁶⁾

과거에는 선염 넥타이가 나염 넥타이보다 생산가가 높기 때문에 전체 넥타이 생산량의 1/5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다채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선염 넥타이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물론 명품 브랜드 중 몇몇은 아직도 얇고 가벼운 느낌의 선명한 색감의 나염 타이에 주력하기도 하지만 선염은 직조방식을 통해 수제(手製)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

6) Cavate collection사이트 참고 - www.cravate.co.kr

에서 대담한 색상을 완화시킨 조직의 섬세함으로 나염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또한 실크의 가장 큰 특성은 온화한 광택을 낸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예로부터 고급직물로 여겨져 왔다. 장점으로는 섬유가 매우 가늘고 길며 질기므로 얇은 것, 치밀한 것까지 쉽게 짤 수 있으며, 보온성이 좋고 염색이 잘 되므로 여러가지 색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광에 약하고 염색이나 세탁으로 변색되기 쉬우므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실크사를 이용해 여러 가지 원단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 견직업자는 능직, 주자직, 평직 등의 서로 다른 직조양식⁷⁾ 또는 여기서 파생된 체크무늬로 땀는 양식, 작고 촘촘한 무늬를 만드는 사블레⁸⁾, 세로 홈을 골지게 짜는 양식 중에서 선택한다. 그리고 소재의 색감이 불빛 아래서 미묘한 차이를 내며 촘촘듯 역동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표면을 섬세하게 만들어 여러 직조양식을 혼합해서 짜기도 한다. 즉, 그들은 와이셔츠 제조업자나 양복사들의 요구에 따라 혼합효과를 내거나 물결무늬를 넣거나 벨벳가공(종이 등에 양모, 면 같은 섬유를 입히는 것), 아교 처리, 주름잡기 등을 넥타이에 실현하는 것이다.

한편 나염은 칼라가 좀더 선명하게 표현되며 작은 모티브의 가는 라인까지 디테일을 살릴 수 있으며 얇고 가벼운 소재감으로 여름시즌에 더욱 선호되고 있다. 단, 각 색상들에 대해 여러 편칭 필터를 만든 다음 이를 통해 물감을 천 위로 흘려보내는 조판제작 작업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공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1) 소재의 종류

* Silk

넥타이 소재의 이미지로서 최상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실크이다. 연간 생산량의 약 60%가 실크이며 광택과 촉감에서 고급스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탄성 면에서도

7) 직조 : 날실과 씨실을 교차시키는 방식

8) 샤블레 : 쿠키의 어원으로 네델란드의 쿠포케에서 따온 것으로 작은 케이크라는 뜻. 쿠키는 미국식 호칭이며, 영국에서는 비스킷, 프랑스에서는 '샤블레'라고 부른다.

주름이 잘 가지 않으므로 장점으로 작용한다. 반면, 보존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다시 부흥하는 클래식의 유행으로 우아한 의상에서부터 그 외 다양한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시 섬유업의 선두를 달리기 시작했다.

* Wool

형태가 잘 무너지지 않고 주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넥타이 소재로 합격이다. 결점으로는, 볼륨감이 너무 있어 매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추동 재킷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실크처럼 광택은 없지만 따뜻하고 중후한 느낌을 주는 소재다.

* Cotton

젊고 캐주얼한 이미지의 넥타이를 선택하려면 면 소재의 넥타이가 가장 좋을 것이다. 더욱이 면의 장점으로는 튼튼하고 적당한 탄력성이 있으며 염료의 배합이 용이하며 아름다운 발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점은 주름지기 쉽고 줄어들다는 점이며 기본적인 넥타이 소재는 아니지만 평균 가격대로는 다른 소재에 비해 가장 싸다.

* Linen

마는 여름용 마 재킷에 어울리는 소재이며, 청량감이 있어 좋다. 단점은, 탄력성이 부족하고 주름지기 쉽다는 점이다. 주름이 지는 것을 개성으로 여기고, 천연 섬유를 선호한다면 매블 만한 넥타이 소재이다.

* Synthetic Fiber

넥타이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섬유 중 대표적인 것이 폴리에스터, 아세테이트, 레이온 등이다. 폴리에스터는 탄력성이 풍부하고, 주름이 쉽게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아세테이트는 가볍고, 형태 보존성이 강하며 실크와 비슷한 감촉을 가지고 있는 화학섬유로 넥타이의 경우 knit tie에 해당된다. 레이온은 광택이 있고 천연소재에 가깝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재다.

(2) 특수사의 종류

* 강연사 (도 11)

‘강연사’란 흔히 주름 패턴이라고 하며 일반직 원단의 뒷면에 일반지의 6배정도 실에 트림을 주어 요구되는 위치에 제직하는 방법으로서 제직 시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가공 후 원단 전면에 입체적인 볼륨감이 표현된다. 조직으로서는 평직의 효과에 적합하며 볼륨감의 정도조절이 중요하다. 봉제중 다림질에 의하여 입체감이 손상되어 밋밋하게 보여질 우려도 있다. 구겨진 효과나 일정한 두께의 라인표현이 가능하다.

* 메탈사 (도 12)

보통 금사나 은사로 불리우는 화려하고 반짝이는 철제느낌의 실로 요즘은 다양한 색상이 나오고 있어서 장식효과를 내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소재 중 현재 넥타이 업계에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이미지의 대명사의 실크를 선택해 주테마인 ‘향기’에 대한 우아함을 살리고자 하였다. 원단조직역시 엘레강스한 플라워 디자인에 맞춰 광택감이 좋은 샤틴조직을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 특수사중 금, 은박사를 포인트로 적용해 화려함을 더하고자 하였다.

*벨벳사 (도 13)

‘샤넬사’라고 불리우는 실로, 입체감이 크게 강조되어 일반적인 양복에 코디하기에는 다소 어색하나 적당한 면적에 벨벳이 표현되어 있어 캐주얼이나 일반적인 양복에도 자연스럽게 코디. 진 소재나 면 종류의 의상에도 효과적이다. 단점으로는 의도적인 충격에 의해 넥타이 표면의 벨벳 효과가 손상되기 쉬우니 사용자의 패션 감각에 의한 구매와 세심한 착용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매듭부분이 두꺼워 셔츠와 재킷의 선택이 중요하다.

(3) 원단 조직의 종류

* 능직(Twill) (도 14)

타이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으로 경사와 위사를 각각 2올 이상씩 건너뛰어 사선방향으로 골조직 형태를 띠고 있으며 두꺼우면서 부드럽고, 쉽게 구겨지지 않는다. 사선은 오른쪽 또는 왼쪽을 향하며 조직과 밀도에 따라 매끄럽고 치밀하며 내구성이 강하다. 흔히 말하는 트월이 여기 해당되며 킹 트월과 일반트월로 나뉜다.

주로 Stripe, All-over, Crest⁹⁾등에 많이 사용된다.

능직물의 종류로는 데님, 드릴, 개버딘, 트월, 트리코탄, 서지 등이 있다.

* 주자직(Satin) (도 15)

경사와 위사의 교차점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고, 경사와 위사의 뜸이 많은 직물 조직. 경사가 4올 또는 그 이상의 위사위에 일정간격으로 배치되며 교차점이 적고 밀도가 작으므로 매끄럽고 균일하며 광택이 있고 외관이 아름다운 고급스러운 조직이다. 단, 매끄럽고 윤기있는 표면감이 특징으로 마찰에 약해 불량률이 높다. 주자직물의 종류로는 샤틀, 다마스크, 애틀라스 등이 있다.

* 평직(Plain) (도 16)

씨실(위사)과 날실(경사)이 서로 하나씩 교차하여 만들어진 기본 조직이다. 가장 간단하고 촘촘하며, 섬유와 실의 종류, 밀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교차점이 많기 때문에 강도가 강하고 실의 미끄러짐이 가장 적은 직물을 생산한다. 장점으로는 모티브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착용감 또한 깔끔하다. 단, 광택이 적고 구김이 잘 생긴다. 대표적인 직물로는 거즈, 쉬폰, 오간디, 태프타, 머슬린 등이 있다.

9) Crest : (방패꼴 문장의)꼭대기 장식,(봉인(封印), 접시, 편지지등에 찍힌)특수단체나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가리킨다.

* 바스켓직(Basket) (도 17)

사자직(斜子織)이라고도 하는 바스켓직은 평직의 변형 조직으로 경사·위사 모두 2개 이상의 실을 함하여 짠 유연하고 광택이 풍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헤링본(Herringbone) (도 18)

‘과능직’이라고도 불리는 조직으로 능직의 변형조직이며 무늬가 산모양을 한다. 조직감이 두껍고 불량률이 낮은 장점이 있다.

2) 표현적 측면

2001년 이후 클래식한 Pin stripe의 Slim suit와 70년대를 연상시키는 좁은 어깨라인, 혹은 정통 테일러드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Set-up suit가 부활하면서 넥타이도 엘레강스하고 로맨틱한 플라워 디자인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얀색 도화지나 실크원단을 보면 언제나 그리고 싶은 것이 있다. 꽃, 낙엽, 나비, 파도, 푸르른 초원 등의 자연을 좋아하는 본인은 그 중에서도 꽃 그리는 것을 즐겨왔다. 꽃에 입맥이 하나씩 생기고 빛깔이 입혀지는 것을 보면 그 향기로움에 작업을 멈출 수가 없었다.

향기로운 꽃향기를 느끼며 거닐던 꽃밭과 오솔길에 피어있던 들풀의 소박한 향기를 추억하며 순수한 자연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연 사랑의 정신은 디자인에도 이어져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인 꽃을 넥타이에 표현해냄으로써 패션이라는 인위적인 세계에 숨쉬는 작은 자연이 되고 자 하였다. 수많은 명품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에서도 앞 다투어 나비와 꽃 형상의 액세서리와 주얼리, 의상의 패턴으로 쏟아내고 있다.

6,70년대 일어난 큰 사회·문화적 변화가 의생활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래 넥타이는 남성들에게 더 이상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 많은 것은 남성 의복 가운데 가장 덜 황량한 이 장식품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넥타이는 그 자체로는 아무 실용성 없는 하나의 천 조각에 불과할 뿐, 개성에 따른

선택적 소지품이기 때문에 착용하는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이름테면 조끼같이 용도가 분명한 옷은 그 유용성 때문에 무의미하게 된다. 현대적 인간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이상을 개성으로 표현하고 고유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단 하나의 장식품만 소유한다, 이것이 바로 넥타이다.”라고 이탈리아 현대 작가 알베르토 모라비아는 말한다.

아름다운 천에 대한 즐거움은 물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 즉 마음속의 깊은 감정이나 기분 등을 은밀하고 미묘한 느낌을 통해 상대방과 교류하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즐거움을 꽃을 통해 표현해 내고자 하였다.

넥타이 하면 단순히 셀러리맨의 전유물이라 생각하던 때는 이미 지났다. 사회적 구속으로 비약해 팬히 거부감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 정장을 입거나 캐주얼 차림을 하거나 이제 넥타이는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소품이므로 다양한 모티브 문양에 따른 분위기 연출의 차이를 알아보겠다.

***넥타이 디자인에 사용되는 모티브의 종류**

All over(올오버) -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무늬가 반복해서 사용된 것.(도 19)

Dot(도트) - 점 형태를 반복해서 깔아 놓은 무늬.(도 20)

Stripe(스트라이프) - 사선으로 선이 있는 무늬. 넥타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패턴으로 다색을 사용한 것을 멀티 스트라이프, 단색으로 굵은 선을 같은 폭으로 배열한 것을 블록 스트라이프라 한다.(도 21)

Solid(무지) -한가지 색이나 한가지 색 분위기의 무늬. 모든 무지를 가리키며, 직조 방법에 따라 느낌이 다양하게 연출된다.(도 22)

One Point(원 포인트) - 반복이나 일정한 배열 없이 자유롭게 그림이나 형상을 넣어서 디자인한 것을 말한다. 독특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도 23)

Check(체크) - 격자 무늬가 들어 간 것.(도 24)

Paisley(페이즐리) - 올챙이와 같이 곡옥 모양을 한 프린트 무늬의 일종으로 인도의 종려나무 씨앗을 페르시아 풍으로 변화 시킨것. 캐시미어 숄무늬로 이용되었으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확산되었다.(도 25)

Floral(꽃이나 식물) - 꽃이나 식물무늬를 모티브로 응용한 디자인.(도 26)

Geometric(지오메트릭) - 반복적인 기하학적 모티브의 리드미컬한 변화감을 전해 주는 그래픽적인 패턴.(도 27)

실제 넥타이를 디자인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9가지를 기본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패턴은 스타일링에 흥미와 호기심을 돋우는 요소로 패턴을 과감히 시도하면 기분전환이 된다. 대담한 기하학 무늬는 활기를 불어넣어 주며 레오파드 문양(표범무늬)독특한 풍미를, 플라워 프린트는 여성스러움과 고혹적인 분위기를 선사하기도 한다. 본 연구자는 로맨틱 엘레강스를 표현함에 있어 플로럴 모티브를 이용한 포인트와 올오버성 디자인을 선택해 디자인하였다.

본 작품들은 다양한 패턴이 공존하는 요즘 본 연구자는 복고의 바람을 타고 유행하고 있는 화려하고 로맨틱한 플라워패턴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내추럴하고 로맨틱한 감성을 자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하는 디자이너들의 오랜 욕망을 표현해주는 자연소재의 원단이나 모티브가 유행하고 있으므로 디자인이나 소재면 모두에 이국적이고 강렬한 이번 시즌의 최고테마인 “스위트 로맨틱”을 반영하였다.

본 작업에서도 강렬한 자연의 싱싱함, 작은 장미잎사귀, 터치감이 살아있는 회화적 느낌의 큰 플라워, 유려한 보테니칼의 줄기들, 마치 부케와 같은 꽃 무리에서 산발적인 흐트러짐, 녹푸른 숲의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리얼리즘(사진처럼 생생한 묘사)과 그래픽화를 통해 디자인하였다. 이중에서 고풍스러운 사라사 무늬는 더욱 여성스러운 NINA RICCI 브랜드의 고유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디자인 그룹이다. 자연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며 정적이고 동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동양화에서 볼 수 있는 난

초의 이미지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지난 수 시즌동안 변함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팅글은 글래머하고 화려한 것 등, 다양한 형태로 패션전반에 걸쳐 소개되고 있다. 물론 여성복에서 더욱 그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의 포인트 역할로의 반짝임 역시 트렌드로의 굳건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꼭 세련된 야간용이 아니더라도 스팅글이나 비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안드레아 비빅스(이탈리아 스팅글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은사나 금사 등의 특수사를 이용한 반짝임은 딱딱하고 고정적인 이미지의 넥타이 이미지를 더욱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남성미를 과시할 수 있는 패션소품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주므로 작품에 포인트로 사용하였다. 또한 작업과정에서 장식성과 볼륨감을 추구하면서 고급스러운 클래식감각의 현대화에 주목해 플라워모티프의 사이즈의 다양화와 추동시즌다운 깊이감 있는 색상을 기본으로 진행했다. 2000년 이후 점차 엘레강스 지향, 시장의 성숙화에 따른 클래식감각이 있는 생활방식이 주목되고 즐거운 마음이 넘치는 로맨틱무드가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조직의 표면감, 자연스러운 실크의 광택감, 예상 밖의 대담한 꽃문양 사용은 상품적 가치와 작품적 가치를 동시에 표현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흐릿한 파스텔칼라의 수채화적인 꽃 모양을 부드러운 칼라로 표현한데 반해 그와는 대조적으로 큰 사이즈에 진한 색을 사용한 사실적 꽃무늬를 디자인해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에게 다가가고자 하였다.

3) 내용적 측면

(1) Design Theme

향기로운 초대(invitations to..)

가벼움, 여성스러움, 우아함이 느껴지는 꽃을 통한 향기 속으로의 초대.

(2) Inspiration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디자이너 겐조풍 일본 기모노의상(도 3)의 전통적인 꽃 문양. 크고 화려한 꽃과 나비, 기하학적 체인 장식 등으로 레오나드 넥타이(도 5), 살포시 다가오는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꽃잎의 경쾌함과 싱싱하고 향기로운 꽃이 있는 화원의 이미지.

(3) Design Concept

① Image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듯 생동감 넘치는 꽃무늬를 넥타이에 그대로 표현해 마치 자연 그대로의 향기가 전달되는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으며, 아름다운 꽃의 세계와 동양적인 선의 만남으로, 낭만적인 복고풍 감성을 표현하였다.

생활의 변화에서 오는 새로운 감수성과 새로운 향기를 추구하며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이고 로맨틱한 남성이미지에 로맨틱 엘레강스 이미지를 더해 미래를 향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Esprit(挺身,정신)속에서의 New Luxury 개념을 이끌어 냄으로써 자연스러우면서도 섬세한 자카드로 장식적이고 감각적으로 디자인하였다.

② Pattern

2002 추동시즌 남성복의 키워드는 Elegance이다. 이러한 여성스러운 우아함이 어느 시기보다도 두드러진 시기는 바로크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서양 복식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복식의 발전과 더불어 직물의 패턴 또한 매우 다채롭고 풍부하게 발달되었다. 당시의 직물은 단순한 직물이 아니라 예술작품으로서 생산되었으므로(박춘순 1985) 그 고전적인 패턴은 오늘날 디자인적인 면이나 미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아 텍스타일 디자인 계에서 활용도가 높고, 현대인들에게 애용되고 있다.

이 시기의 텍스타일 디자인의 모티브는 플로럴(Floral)¹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플로럴패턴은 오늘날 텍스타일디자인의 70~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주제로써 계속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이런 바로크적 감성을 기본으로 본 연구자는 바로크적 양식 중 플로럴모티브를 기본으로 동양화의 섬세한 자수패턴과 함께 일본의 기모노의 패턴을 응용하였다. 특히 브랜드이미지의 확립과 매장의 차별화를 이끌어 가게 되는 패턴그룹으로 꽃패턴은 현재 판매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브랜드 이미지

10) Floral : 꽃무늬를 이용한 디자인 패턴의 총칭으로 나뭇가지나 잎을 디자인한 것도 포함된다.

상품군으로 꼭 끌고 가야 하는 패턴그룹이다.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면서도 차별화 된 스타일을 요구하는 세대를 반영하여 절제된 클래식 스타일에 최신 유행 패턴과 칼라를 적용시켜 새로운 감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2년도 이후에 중요 컨셉으로 등장한 제품의 Quality(질) 향상으로서 고밀도의 도입과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던한 느낌, 조직에 의한 미묘한 표면질감, 볼륨감, 광택감등의 Trend(경향, 유행)를 접목시켜 다양한 Color 그룹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고급스러움을 더해 폭넓은 소비자 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연령층에 따라 패턴을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패턴그룹은 Background에 작은 잎이나 꽃 모티브를 잔잔하게 배치하여 자카드 처리함으로써 은은함을 표현하여 Sub-target(30대 후반~40대 후반)까지 소비자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며, 자유스럽고 과감한 원 포인트 패턴 군은 Main-target(50대 초반~60대 후반)을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하였다.

③ Season concept

현대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이 그 근본부터 변화해가고 있다. 고급스러움과 완벽함의 Luxury는 street 개념의 가볍고 활발한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선호도가 더욱더 중시되어간다. 2002년 추동시즌은 BOB문화의 영향아래 낡고 고풍스러운 것과, 신 기술적인 것, 예술적, 수공예적인 것과 대량 생산적인 것, 단순한 것과 고급스러운 것, 빈약한 것과 화려한 것 등 반문화적인 60, 70년대의 가치와 성취적인 80년대의 가치가 절묘하게 양립되는 패션이 시즌을 리드 해 가게 된다. 이러한 복고무드를 통해 고전적인 이미지를 주는 플라워 패턴이 소비자의 낙관주의적 변화의 열망을 예고한다.

즉, 아래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하였다.

* Neo-romanticism (도 28)

‘신낭만주의’라는 뜻으로 183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한 사조로 섬세한 장식, 감성적인 표현, 수예를 이용한 장식을 통해 우아한 여성미를 강조한다.

*** Neo-baroque (도 29)**

1982년~1983년 F/W 패션에 주요경향으로 장식성이 강하고 여성스러운 로맨틱 스타일의 특유의 멋을 충분히 표현한 유희적인 패션.

*** Neo-luxury (도 30)**

강한 광택감의 Metallic Yarn(금사나 은사)등의 메탈릭사의 반짝임을 통한 호화스럽고 화려한 트렌드.(Noble & classic)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는 과도하지 않은 장식성으로 품위 있게 발현된다.

(패션전문자료사전 KDR한국사전연구소)

(4) Color Application (도 31,32,33)

넥타이와 의복은 모두 색을 가지고 인접해 있어서 이들 색이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고 상호 관련되어서 통합되어 지각된다. 따라서 넥타이 무늬나 색은 배경이 되는 정장색과의 배색방법이 조화로운지 고려해야한다.

칼라선정은 남성복 트렌드를 기본으로 하되, F/W시즌마다 전통적인 주류에 속하던 Dark color의 변화나 세련된 내추럴 색상이 마켓으로 진입해 들어오고 있음을 고려하여 Contrast color의 조합은 Plum & Lilac, Camel & Burnt orange처럼 근접한 색상의 배색으로 보다 세련된 칼라매치를 보여 주고자 하였고, Deep brown, Cobalt blue 등 Dark tone의 칼라들과 어울리는 Bluish purple, Hazed pink(낮은 듯한 핑크), Orange등 붉은 색을 띠는 톤이 트렌디한 느낌으로 등 남성복에서의 Elegant point color로서 활용되었다.

2002년 F/W시즌의 칼라 트렌드는 Washed(빛바랜)된 듯한 파스텔 칼라 군과 더불어 싱그러운 엷록소나 흙, 깊은 태양과 같이 자연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감각에서의 내추럴 칼라들이 주축을 이룬다.

전 시즌부터 정착해 가고 있는 Brown color와 조합 가능한 Light & Rich감각이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남성복의 베이직 색상인 Brown계통은 Orange느낌으로 Blue나 의상에서의 안정적 이미지인 Black은 넥타이의 기본 판매군인 Navy로 제안했다. Dark royal blue 느낌으로 표현되어진다. 전시시기가 F/W시즌이었으므로 신비로

움과 고급스러움을 주는 실제 판매 군으로써 의 Navy, Wine, Grey의 Dark tone을 기본으로 싱그러운 에너지를 선사하는 달콤한 즐거움이 농축된 파스텔 칼라들을 사용해 사람들 마음속의 즐거움과 명랑함을 불러내어 작품적인 측면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였다.

즉, Dark한 바닥 칼라감과 돋보이는 모티브의 화사한 칼라가 코디네이션 시 화려하고 개성있는 연출을 할 수 있으며, Wide Lapel, Narrow Lapel과 슬림 팬츠에 코디 시 북고무드를 표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넥타이에 표현된 칼라의 특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 Nostalgic Blue

Blue는 다른 색과 혼합된 다소 변형된 Turquoise(터키옥색)에서 Purplish blue(자주 빛 블루)까지 그 영역이 상당히 넓게 표현되고 있지만, 넥타이의 칼라 중 가장 큰 소비군인 Cobalt blue와 Indigo navy가 가장 중요하다. 또 Azure(하늘색)등 밝은 파스텔 톤이 보여진다.

* Wine

전반적으로 Red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Vivid(선명함), Strong(강렬함), Dark(어두움)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주요한 색조로 나타나고 있으며, Exotic(이국적인)한 분위기의 선명한 레드가 눈에 띈다. Fuchsia/Crimson(적자색와 진홍색)의 Aubergine(자주색)을 사용하였다.

* Dark Grey

차분히 가라앉은 도시의 풍경 같은 뉴트럴 그레이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칼라는 더욱 풍부해져 Gray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지만 다른 색상 그룹을 연결해주는 Basic color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며 미묘한 hue(색상)와 tone(색조, 명암)차이를 나타내준다.

* Refined Brown

이번 작품을 위한 새로운 브라운은 Yellowish한 Organic brown과 붉은 빛을 가지는 Ethnic brown을 중심으로 Elegant, Natural한 감성을 동시에 표현한다. 좀더 발랄

하고 캐주얼한 방향으로 전개가 예상되며 Golden yellow나 Terracotta brown과의 조합으로 보다 따뜻하고 동양적인 감성을 자아낸다.

* Retro Pink & Coral

약간 색이 바랜 듯한 Retro(옛것의 재유행) 감성의 Coral pink가 Romantic mood와 함께 등장한다. Hazed pink가 탁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표현된다.

* Fresh Green

새로운 계절에 새롭게 돌아나는 푸르른 새싹의 생명력을 간직한 Green은 트렌디한 칼라로 큰 소비 군은 아니지만 캐주얼 한 감성과 신선한 자연미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Mint green ,Lime(레몬빛 그린)을 사용했다. 바닥칼라는 다크한 Olive green을 통해 자연주의적 성향을 표현하고자 했다.

* Washed Pastel

창백한 Pale tone(얇은 톤)이 아닌 태양에 노출된 Pale bright pastel color group (밝은 파스텔 그룹)이 신선함을 더해준다. Sky blue, Pale pink, Coral, Yellow등의 칼라가 귀여운 느낌의 작은 꽃 디자인에 적용되어 가볍고 화사한 느낌을 준다.

(5) Function

밝고 즐거움이 느껴지는 화사한 디자인을 보며 각박한 현대인에게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게 해준다. 즉, 플라워 넥타이 패턴을 통해 인생과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그 꽃들의 향연으로 인해 세상이 좀더 아름답게 유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작품들이 갖는 의미이다. 현실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의 정서적인 자연으로의 회귀를 위해 넥타이에 표현된 시각적 꽃의 향기를 느끼며 삶의 애환과 인고의 시간을 잠시나마 잊고 휴식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즉, 역겹의 세월 속에 격어 온 인고도 꽃에서 배어 나오는 부드럽고 우아한 향취를 느낄 때만큼은 잊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자인하였다. 또한 디자인 테마인 ‘향기’에서 알 수 있듯이 후각적 즐거움으로의 향수의 의미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측면에서 아름다운 플라워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기쁨과 즐거움을 불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에 임했다. 개성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션의 마지막으로 불리 우는 향수를 뿌릴 때 얻는 만족감처럼 본 연구자의 넥타이가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으면 한다. 클래식한 정장 수트 차림에 꽃무늬 타이로 활기를 주면 걱정은 잠시 잊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즐거운 옷 입기가 될 것이다.

(6) Target

품질과 가치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현대 소비자 층의 mind를 반영하여 고급스러움과 품격을 추구하는 50대 이후의 노년층을 주 타겟으로 하되, 넓게는 3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 다양한 소비자 층을 수용하고자 한다.

① 대상

- age

main : 50대 초반~60대 후반까지

sub : 30대 후반~40대 후반까지

- occupation

고급스러움과 클래식함을 추구하는 50대 이후의 간부급 직장인, 사업가 등의 고소득 전문직종의 부르주아(Bourgeois)¹¹⁾층

- mind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기반을 다진 사람들로서 사회적 지위로 인한 폭넓은 대인 관계를 갖는다.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삶은 지향한다. 다양한 사람들을 접해야 하는 만큼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추구하며, 돋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또한 패션은 기본 매너라고 생각하므로 자신을 가꾸고 포장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할 줄 안다.

예) 보보스족(Bobos)¹²⁾, 메트로섹슈얼족(Metrosexual)¹³⁾(도판4)

11) 부르주아 : 중산 계급의 시민이나 상공업자 (지주나 농가, 봉급생활자에 대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계급의 구성원, 유산자, 자본가등을 일컫는 말(cf. Proletarian)

12) 보보스 : 부르주아의 물질적 실리와 보헤미안의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누리는 미국의 상류계급을 가리키는 용어. 기득권 세력이 관습 제도, 가문 등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성공한 것과는 달리, 스스로 성공 신화를 이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계층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 2001년 현재 디지털 시대의 엘리트로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 life style

자기개성이 강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패셔너블한 이들은 럭셔리한 파티문화를 즐긴다. 경제력을 갖춘 이들에게 넥타이란 자신의 개성과 함께 지위를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감 그 자체이므로 고급스럽고 독특한 디자인을 선호한다. 또한 꽃무늬 넥타이 하면 연령이 높은 분들에게 어울린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좀 더 다양한 연령층에서 화려한 패션감각을 뽐내는 잣대로써 플라워넥타이를 선택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자신의 남성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동안 무시했던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는 여성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은 꽃미남형의 외모와 섹시한 바디라인을 자랑하면서 여성스러운 핑크빛의 플라워패턴도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생활을 추구한다. 몇 년 전만 해도 꽃무늬는 여성복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패턴이었다. 그러나 명품을 선호하며 남들과 다른 개성의 표현으로써 넥타이를 연출하고자 하는 이들은 심플한 정장에도 꽃무늬넥타이나 머플러를 연출하여 자신의 개성을 뽐낸다.

(7) 생산품

-남성 악세서리로서의 넥타이

(8) 제작방법

-선염에 의한 44인치 혹은 66인치 중폭직물

(8) Fabric (yarn point)

13) 메트로섹슈얼 : 자연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자신의 외모와 패션을 가꾸는데 여성 못지않은 열정을 쏟아 붓는 남성을 가리키는 신조어. 즉, 대도시에서 거주하면서 화장품을 항상 사용하고 여성처럼 패션에 관심이 많은 청 중년(20대~40대)남성을 일컫는 말이다. 처음 등장한건 1994년이다. 자신의 남성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동안 무시했던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는 여성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세계가 열광하는 새로운 유형의 남자들. 이들은 대담한 문양과 화려한 색상의 패션으로 트렌디한 감각을 뽐내며 패션리더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100% Pure Silk (Clean/ Smooth effect/ Shine)

소재의 Seasonless화가 가속되고 있으므로 벵타이에 있어서 럭셔리, 엘레강스 방향성으로서 우아한 광택감의 High Quality Silk, Satin의 부드러운 터치감을 강조하는 바로크 스타일의 플로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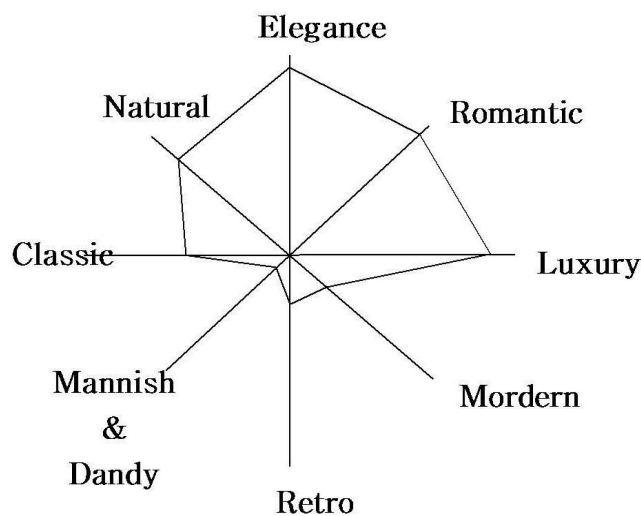
-Metalloplastic Yarn

미묘한 또는 반짝이는 광택의 표현이 중요. Glittering한 효과를 위하여 silk와 metallic, copper, steel, petinated gold yarn의 활용, metalloplastic yarn을 활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10) Design Source

이번 작품들은 자연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꽃’을 기본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조금은 가벼워진 옷차림에서 따뜻한 햇살 속에서 피겨 나오는 봄의 향기와 꽃의 향기로움을 난초(Iris), 장미, 목련(Magnolia blossom), 매화, 아네모네(Anemone), 아마릴리스(Amaryllis), 국화(Crepis rubra), 백합과(Paeonia suffruticosa), 펜지(Pensees), 철쭉, 양귀비, 잎사귀, 단풍잎 등의 다양한 꽃과 줄기의 이미지로서 표현하였다.

(11) Image Positioning



Ⅲ. 작품제작 및 분석

1. 작품제작의도

텍스타일디자인의 기획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차기시즌의 소비자가 어떤 미의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추구하는가 하는 예측에 있다. 이것을 기초로 그 시대 유행 흐름을 분석해 나감으로써 소재 및 디자인, 매장전개까지의 기획이 가능하다.

즉, 트렌드의 예측 결과에 따른 컨셉테마(concept theme)를 설정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시대적 감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제작하는 것이 텍스타일디자이너의 주 업무인 것이다. 따라서 현 넥타이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점에서 브랜드의 특성과 시즌에 따라 변화하는 트렌드의 흐름에 맞춰 디자인과 소재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패션산업이 감성을 중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감안하여 남성 패션의 포인트이자 유행 흐름을 선도하는 넥타이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이미 연구목적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사람의 감성을 후각적 향으로 나타낸 것이 ‘향수’라면 드라마틱한 시각적 향기를 꽃의 이미지를 통해 넥타이 패턴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이번 작품의 컨셉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낙관적인 관점을 통해서 패션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디자인에서도 따뜻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Retro reference(과거에 대한 재평가)가 중요시되고, 소비자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나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좋은 품질과 좀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에 끊임 없는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기준은 이성보다 감정우선이 되어가고, 자신의 개성을 돋보이게 해줄 창의적 요소를 지닌 디자인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꾸준한 브랜드 매니아들 및 트렌드 세터들에게 ‘꽃’

이라는 아름다움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이다.

그동안의 본 연구자의 작품들의 주제는 모두 ‘자연’이었다.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이 자주 접하는 수많은 표현 대상물 중에서 자연은 인간이 접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까운 존재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꽃’은 인간의 생활과 정서를 풍요롭게 해주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우리의 시각을 즐겁게 해주고 후각을 향기로 가득 채워준다. 이러한 꽃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과감히 넥타이에 표현해냄으로써 작품성과 판매성을 동시에 갖춘 디자인으로 표현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자 하였다. 또한 제품을 기획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감상용이나 장식용 오브제(Object)만이 아닌 실용목적의 대상으로 넥타이를 제작하였고 점점 더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크고 작은 다양한 꽃 패턴으로 표현해 보았다.

즉, 본 연구는 ‘향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자 드라마틱하고 복고적인 로망티시즘의 영원한 코드인 플라워의 향기를 남성의 시각적 약세서리인 넥타이에 표현해 꽃에서 나는 달콤한 향기와 감촉을 촉감으로나 시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90년대 말부터 미래를 향한 자연과의 향기로운 조화를 추구하는 Romantic Elegance Mood(도 28)가 대두되면서 부드러움, 풍부한 디테일로 인한 수공예적인 감각, 복고적인 Retro감성을 전달하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플라워 디자인이 선호되고 있는 시장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슈트 코디에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즉, 현대복식에 있어서 Ecology Life(자연의 향수)트렌드 표현방법 중 하나인 자연 모티브의 문양,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실루엣 등으로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고자 하는 것에 기초로 하여¹⁴⁾ 유행색(도 33)에 맞춰 디자인하였다.

제품의 실용화와 상품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과거의 복고적 성향을 기본으로 하되 현대 소비자의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모색하였고, 플라워 패턴의 다양성을 위해 단순화된 모티브의 표현 및 사이즈의 변화로 응용, 좀더 다양한 소비자가 공감하며 애용할 수 있도록 주력하였다. 넥타이 패턴 디자인에 맞게 재창출하여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는 현실적인 디자인을 하고자 하였다.

14) 다카다 겐조(Kenzo Takada)의 작품에 관한 연구 - 정연자 1993(학술논문)

미술사에서 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 없이 채택되어진 소재이다.

특히 동양의 회화사 속에는 화조화(花鳥畵)¹⁵⁾(도 7)라는 장르를 통해 수없이 많은 꽃그림이 등장한다. 그 꽃들이 의미하는 것은 장식적인 아름다움인 동시에 부귀와 영화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꽃은 변함없이 많은 화가들이 즐겨 다루는 소재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꽃은 자연 또는 상징물로서의 의미를 띄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작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크게 구분하여 장식적인 채색화로써 다루어지거나 조형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졌다.(서정걸(미술평론가)-김현숙 작가평 중에서)

본인에게도 ‘꽃’이란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한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느끼던 싱그러운 풀내음, 화창한 푸른 하늘, 활짝 피어나는 꽃향기는 나로 하여금 늘 표현코자하는 충동의 대상이었다.

칸트는 이런 말을 했다. "여성의 미모는 백장의 추천서보다 낫다." 굳이 이러한 거창한 명제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외모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본능에 가깝다. 옛말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다. 똑같은 것이라도 보기에 좋은 것이 먹기에도 좋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여러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대인은 자신을 가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모가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고 덩치가 왜소한 사람을 비교하여 어느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상당수가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괜찮은 외모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괜찮은 외모를 향한 인간의 노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15) 화조화 : 꽃과 새를 주제로 한 매우 사실적인 그림으로, 넓은 의미로는 새뿐 아니라 네 발 달린 짐승 및 곤충 등 풀벌레나 들꽃 및 채소와 과일 등을 대상으로 한 그림을 이 범주에 넣기도 한다. 동양화의 발전에 있어 인물보다는 후에 시작되었으나, 산수화보다는 앞서 발전되었으며 당(唐)에 이르러 독립된 분야로 된 것으로 여겨진다. 직업화가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새들을 화사한 꽃들과 함께 그린 매우 장식적인 그림이 있는가 하면, 수목 위주의 유현한 정경을 그린 문인화 영역에 속하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조선 초 이암(李巖)과 조선 중기의 선비화가 조속(趙涑)과 그의 아들 조지운(趙之耘) 그리고 신사임당(申師任堂), 후기 화단의 심사정(沈師正)·김홍도(金弘道) 및 말기 화단의 장승업(張承業) 등이 유명하다.

“개성과 인간과의 관계는 향기와 꽃의 관계와 같다.”라는 CM 시워드의 말처럼 인간은 모두 다른 생김새만큼이나 독특한 개성들을 지니고 있다. 개성이라는 것은 남들이 갖지 못한 나만의 것을 말한다. 즉, ‘돋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나만의 향기를 지닌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누구나 갖추고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만이 지닐 수 있는 개성을 찾아내어 가꾸는 것이 아름다움으로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된다.(조선대학교 사이트)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는 인간정신세계의 안식처로서의 자연의 대표적 아름다움, Flower를 통해 삶의 재충전으로써의 향기를 느껴보고자 하였으며 모두에게 행복감을 주는 향기로운 작품이 되길 바라며 작업에 임했다.

2. 넥타이 제작방법

작아 보이는 넥타이에도 첨단 과학기술과 그동안 남성 정장의 대표적 장식품으로서의 인류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노하우가 담겨져 있다. 원단에는 현존하는 첨단의 재직기술과 디자인이 함유되어 있으며, 심지와 라벨의 제작 그리고 봉재방법에서도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날의 넥타이가 만들어지고 있다.

1) 넥타이의 정의와 역사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넥타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

넥타이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려 ‘이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목에 감거나 묶기도 하는 악세서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넥타이(영국:Neck-tie,이태리:Focal,프랑스:Cravate)는 Neck-tie라는 영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칼라둘레에 매는 밴드형의 천을 총칭하는 말이다.

“잘 맨 넥타이, 이것은 인생에 있어
성실함을 보여주는 최초의 행위이다.”

오스카 와일드<변함없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1856-1900/영국의 소설가)

현대 남성의 복장 중에서 필수 항목이 된 넥타이는 유행 대열에 쉽게 참가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세서리 일뿐 아니라, 현대 생활에서 잘 코디된 넥타이는 개인의 인격과 품위, 개성 등을 자유롭게 표현 해주는 중요한 필수품목의 하나가 되었다. 넥타이는 남성의 개성적인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신구 제품으로, 정장의 단조로운 직물과 복식으로 독특한 개성적인 변화를 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넥타이가 착용자의 이미지를 대변해 주는 유일한 도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정장 중 유행흐름이 가장 빠른 편이다. 넥타이는 즉각적이고 두드러지게 눈에 띄므로 착용자의 태도나 지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시각적 인상을 강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또 와이셔츠의 단추를 가려주어 남성 육체의 수직성을 강조하는 것 외에 와이셔츠와 신사복의 엄격함에 고급적이고 부유한 이미지를 더해준다.

넥타이의 역사는 기원전 50년경 고대 로마 병사들이 목에 휘감아 착용한 '포칼(Focal)'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이 포칼은 거의 목도리에 가깝고 직접적인 유래는 1656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다. 크로아티아의 크로아트 연대 병사들이 터키 전투에서 승리한 후 파리에 개선하는 시가행진을 할 때 루이 14세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파리에 개선한 크로아티아 지방의 용병부대가 앞가슴에 크라바트(Cravate)라는 장방형의 천을 매고 있었는데 호사스러운 것을 좋아하던 루이 14세가 그것을 보고 왕실의 기장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하여 크라바트군이 창설되고 군인들이 목에 걸친 천들은 하얀 레이스에 때가 타지 않게 하기 위해 목에 두르면서 실용화되고 순식간에 유행으로 변졌다. 넥타이가 프랑스어로 크라바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로아트 연대에서 유래된 것이다.

16) 넥타이의 색과 무늬에 따른 남성복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강경자, 임지영 1996 (학술 논문)

그 후 크라바트는 프랑스 혁명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가 19세기 초에 다시 나타났으며 이러한 스타일은 영국으로 건너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변형이 되어 발전하게 되면서 크라바트라는 말 대신 현재의 넥타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영국 패션은 현대 넥타이의 아버지라 불리는 '보우 브러멜(Beau Brummel)'이라는 디자이너가 주도했는데 그는 넥타이를 독특하게 매는 방법을 창안하였고, 그 이후 넥타이는 길이, 무늬, 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가지면서 현대의 다양한 넥타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사회의 직업 계층을 나눠 일컬을 때 보통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라고 부른다. 사무직과 관리직의 통상적인 복장이 흰색 와이셔츠에 정장차림인데 반해 육체노동자들의 복장은 초창기 블루진이 많았던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이런 복식문화로 볼 때 어느 나라나 대체로 화이트칼라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 이유는 양복에 넥타이를 맨다는 것은 바로 '지적이고 권위적이며 신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넥타이는 19세기 초 프랑스 귀족층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격적인 상류계층 남성의 패션 특징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신사의 나라' 영국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더 이상 복식이 신분,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다. 특히 넥타이는 정보와 유행에 민감한 현대인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악세서리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20세기 초까지는 다양한 매듭 양식으로, 그 뒤로는 색상이나 소재의 다채로움을 통해 넥타이는 모든 남성들에게 나이나 여건을 초월해서 독특한 개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 온 것이다.

2) 넥타이의 종류

* 선염넥타이(Woven)

색깔을 물들인 실로 직기에서 무늬를 직조하여 만든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하며, 넥타이를 착용하였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며 조직의 입체감을 살릴 수 있어

고급스러움을 더 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단, 나염 원단보다 원가가 높아서, 넥타이 가격이 비싸다.

* 나염넥타이(Printed)

무지원단에 각각의 색깔의 잉크를 나염하여 만든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한 넥타이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넥타이를 만들 수 있고 가늘고 섬세한 디자인과 선명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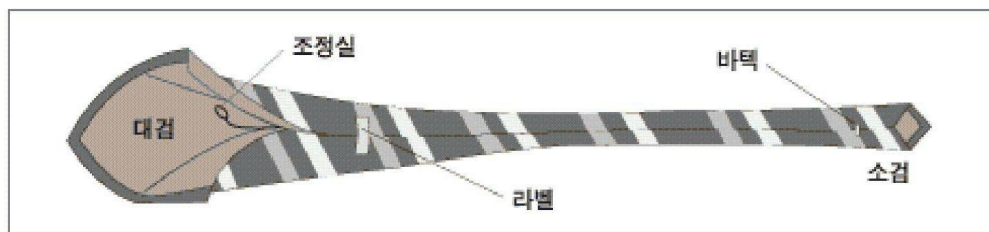
본 작업에는 엘레강스한 컨셉의 이미지에 맞춰 고급스러운 실크사를 이용해 자카드로 표현한 선염넥타이를 제작하였다.

3) 넥타이의 구조와 명칭

넥타이 제작 시에 필요한 원단 부분을 대검, 중검, 소검이라 하며 넥타이는 이 3부분의 천을 연결하고 심지를 넣어 만든다. 길이는 135cm~145cm, 폭은 시대나 유행에 따라 좌우되지만 8.5cm~10cm로 현재로서는 약 9.5cm 정도의 폭을 유지하고 있다.

바텍은 보강스티치로써 좌우옷감을 확실히 고정하기 위해 넣어주며, 조정실은 바느질실에 여유를 줌으로써 타이를 맨 후 매듭이 느슨해지는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준다.

바텍, 조정실, 라벨, 대검, 소검



4) 벡타이의 제작과정

다음은 선업 벡타이의 전 제작과정을 간략히 설명한 것이다.

(1) 디자인 단계

컴퓨터나 수작업을 통한 ART-WORK작업단계로 다양한 디자인프로그램(일러스트, 포토샵, Prima vision, SPD LOOK등)을 이용, 아이디어스케치를 통한 디자인 개발 후 출력한다.

(2) 문직의장

벡타이 디자인을 가지고 직조에 맞게 컴퓨터에서 문직 의장을 하여 직조기에 적용하게 디스켓을 만든다.

(3) 1차 Sample(시직) 제직(Weaving)

문직의장이 된 컴퓨터 디스켓을 직조기의 컴퓨터 라인에 연결하고 염색된 각각의 실을 직조기에 연결하여 직조기를 가동하면 디자인의 의도된 컬러대로 직조된다. 이것이 1차 Sample이다.

(4) 배색(Color-way)

1차 Sample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든다면 칼라 칩을 보며 다양한 칼라를 낸 후 공장에 제직을 의뢰한다.

(5) 2차 Sample(제직된 Color-way)

다양한 칼라가 제직되어 올라온 것이 2차 Sample이다.

(6) Main order

2차 Sample을 보고 Main order할 칼라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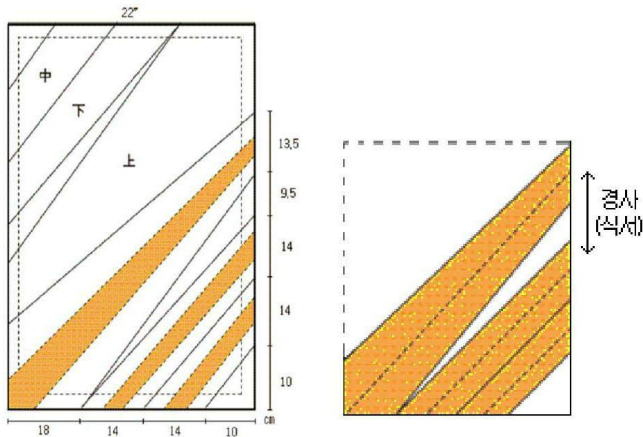
(7) 제직하여 입고한다.

(8) 가공(Finishing)

제직 후 반드시 거치는 곳이 가공처리이다. 가공처리는 대부분 별도의 가공 공장에서 한다. 가공 처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집에서 빨래 후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하고, 말리고, 다리미질하는 공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단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가공을 부드럽게 혹은 뻣뻣하게 하기도 하고, 기타 특수한 가공을 하기도 한다. 불필요한 가공은 원단의 숨을 죽일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가공만 하는 것이 좋다.

(9) 재단(Cut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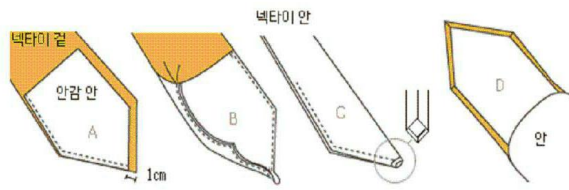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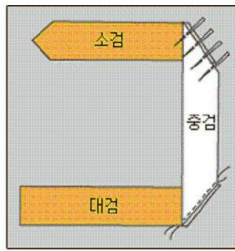
원단이 완성되면 검수를 거쳐서 봉제를 진행하게 된다. 봉제 전에 봉제치수에 맞게 재단을 한다. 재단은 45도 각도의 대각선으로 바이어스 재단을 해야 한다. 1야드 가량의 원단은 넥타이 4개 정도를 만들 수 있고, 대검, 중검, 소검 부분으로 재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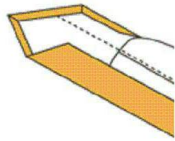
색칠부분 : 넥타이의 전면(앞부분) — : 재단선 (cutting) - - - - : 접히는 부분

(10) 봉제(Se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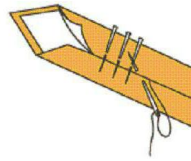
재단한 대검, 중검, 소검부를 잇고, 넥타이 뒤와 품표를 함께 대고 봉제하여, 심지를 가운데로 넣은 상태에서 넥타이형태로 가장자리를 오므리면서 다리미질하여 넥타이 형태를 완성하고, 넥타이 뒷면 가운데로 실로 봉제하여 완성한다. 이때 실(Slip Stitch)은 넥타이의 길이로 수축에 따라 같이 움직이도록 실의 양 끝을 길게 넥타이 안쪽으로 늘어 놓은 상태가 된다. 종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봉제를 했으나, 몇 년 전부터는 '리바기'라는 봉제기기로 봉제하는 곳도 많다. 마지막으로 메인라벨(브랜드 명)을 달고, 다리미질로 마지막 형태를 잡아주어 완성한다. 다리미질할 때, 넥타이 가장자리에 주름이 가지 않게 눌러서 다리미질 않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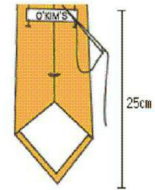
*넥타이의 겉과 안감의 겹을 맞대고 봉제한다.



* 심지를 대고 다려서 넥타이형을 잡는다.



* 중앙선 봉합



* 라벨달기

(11) 검품 및 출고

넥타이원단의 불량이나 가공 상태를 체크한 후 매장에 출고된다.

이러한 과정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작내용차레	준비	소요기간	비고
디자인 제시		2~7일	1.디자인제시에서 봉제까지 약20~30일 소요 2.의장이 있는 넥타이 주문시에는 약 7~15일 소요됨
디자인 그리기	색사는 대부분 직조 공장에 준비되어 있음	1~3일	
문식의장제작		1~3일	
샘플제작		1~3일	
샘플확인 및 주문		1~3일	
원단직조작업	직조 공장	2~7일	
원단가공	가공공장	1~2일	
원단검수	본사 검사실	1~2일	
봉제제단	봉제공장	5~10일	
넥타이봉제			
라벨달기, 최종다리미			
검수 및 납품			

3. 작품설명

주테마는 FOR MAN-향기로운 초대(Invitations to...)로 “여러분들을 가벼움, 여성스러움, 우아함이 느껴지는 꽃의 향기 속으로 초대합니다.”이다.

작계는 순수함으로의 초대, 우아함으로의 초대, 감성으로의 초대, 즐거움으로의 초대의 4가지 소테마를 가지고 작업에 임했다.

이번 논문의 작품들엔 꽃을 모티브로 한 판타스틱한 로맨티시즘이 물씬 풍긴다. 자연에서 힌트를 얻은 컬러와 패턴은 안정감, 따스함, 친근감을 안겨준다.

‘플라워의 향기’라는 주제를 토대로 제품의 실용화와 상품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유행칼라와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하였으며, 감각적이고 패셔너블한 장년층의 소비자를 타겟으로 화려한 플로럴 패턴이 탄생되었다.

단, 의상에서는 좀더 다양한 비주얼적 장식요소를 가미할 수 있으나, 상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사랑하고 애용할 때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아직은 보수적인 넥타이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실제적 장식요소는 배재하여야 했다. 대신 입체적인 칼라감을 사용하고 핸드프린팅 한 듯한 섬세한 자카드 조직감을 통해 작품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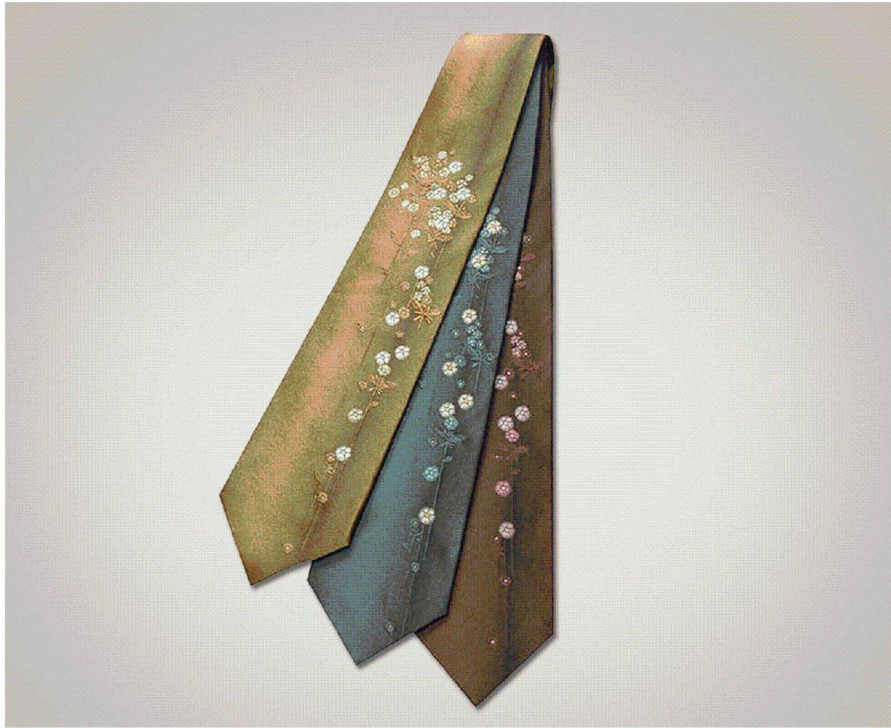
칼라는 고전적이고 화려한 엘레강스 패턴이므로 F/W시즌에 맞는 차분한 배색위주의 Dark base로 Ink blue, Dark wine등의 Deep rich색상 톤과 발랄한 매력을 풍기는 밝은 뉴트럴 색상의 혼합효과로 응용되었고, Deep Brown, Cobalt blue, 어두운 톤의 슈트와 어울리는 Bluish Purple, Wine, Hazed Pink, Orange brown등을 포인트 칼라로 사용하였다.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작품 5】



【작품 6】

1) 순수함으로의 초대 【작품 1~6】

식물세계로의 초대, 풍부하고 향기로운 자연의 유혹, 더욱 내추럴하고, 살아있는 듯한 입체적이며 디자인그룹으로 이국적인 자수느낌의 자카드를 주로 사용하였다.

꽃의 아름다움을 재현하여 오래도록 보존하는 방법으로 사진 같이 세밀하게 그리 는 식물 정밀화 기법이 있다. 꽃의 초상화라 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식물 화 즉, Botanical Art¹⁷⁾ (도판 10)라 부른다. 외국여행을 하다 보면 식당이나 호텔 벽 에 식물도가 많이 장식돼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이를 통해 보아도 식물의 아름다움이 우리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테마에서는 순수한 자연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본능을 충족시켜 주고 보 는 이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디자인을 하고자 하였다.

우선 꽃 중에서는 꽃잎이 큼직하고 울동감이 있는 종류를 선택해 백합, 심비디움 등을 선택했다. 로맨틱과 자유, 꿈과 특별한 사랑을 추구하는 듯한 환상적 분위기의 원 포인트 디자인으로서 바람에 흩날려지는 꽃씨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으며, 이러한 작품적 화려함은 50대 이후 연령층에게 권유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여 진다.

<작품1>,<작품2>은 흐르는 듯한 유려한 곡선의 레이아웃은 봄의 공기란 의미로 신선한 봄바람의 숨결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삶을 담고 있는 꿈, 상상, 환상의 혼란을 사랑하는 순수한 낭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가벼운 공기의 요정이 나타날 듯한 흐드러진 꽃잎과 씨앗의 퍼짐으로 몽환적인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다. 특히 <작품1>의 경우 정형화된 꽃이 아닌 마치 회화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선염으로는 표현되기 쉽지 않은 손으로 그린 듯한 섬세한 붓 터치 의 느낌을 잘 살려주어 화려함의 극치를 통해 작품적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모티브로는 백합(Paeonia)을 사용하였으며 크고 대담한 꽃잎의 이미지를 좀더 과감 하게 응용하였다. 꽃씨의 표현에 메탈사를 넣어 한층 화려하게 보여진다.

17) 식물화(Botanical art)-자연을 방에 끌어들이는 예술 김경후 1992 (학술논문)

Botanical[btʰɛnik(l)] a. 1 식물의; 식물학(상)의 2 식물에서 채취한 -i • cal • ly ad.

<작품3>,<작품4>의 경우는 동양적인 여백의미를 강조한 작품으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고요함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작품3>은 소국을 모티브로 사용하였고 광택감 좋은 샤탄바닥조직에 줄기를 강연사로 표현해 입체감을 살려주었다. 플라워패턴이지만 화려함보다는 암전한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다.

<작품4>은 영화 ‘화양연화’의 잔잔하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영감을 얻은 패턴이다. 차분하고 유려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난초(Iris)의 디자인은 실크소재의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광택감과 어울려 한층 럭셔리한 분위기를 주며, 어두운 바닥칼라와 톤온톤으로 표현된 줄기에 포인트 칼라의 꽃 모티브가 들어가 은은한 멋을 더하고 있다.

<작품5>는 5월의 신부의 풍성한 부케 이미지를 디자인한 작품으로 여성스럽고 우아한 꽃의 이미지를 정갈하게 풀어내고자 하였고 씨앗에 메탈사를 사용해 조명을 받았을 때 포인트로 작용된다.

<작품6>은 일본의 국화인 벚꽃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 패턴(도 3)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하였다. 단정한 꽃의 배열은 화단에 곱게 심어 놓은 꽃을 연상케 한다. 도형화된 모티브로 한층 단정한 이미지를 주고 싶었다.

한마디로 이 테마에서는 꽃의 흐드러진 모습과 그 곁을 스치며 느꼈던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의 향기를 ‘리얼리즘(Realism)’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7】



【작품 8】



【작품 9】



【작품 10】



【작품 11】



【작품 12】

2) 우아함으로의 초대 【작품 7~12】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자연과 기능성의 세련된 균형감을 통한 우아함을 추구하며, 엘레강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고풍적인 이미지로 제안된다.

“여성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주장한 NINA RICCI 브랜드의 도시적인 세련미와 리치한 분위기의 주 컨셉을 감성적인 느낌으로 풀어낸 그룹이다.

라일락꽃이 필 때는 근처만 가고 그윽한 향기가 느껴진다. 항상 맡아온 향기가 있기에 조화를 꽃아 놓고도, 섬유에 표현된 꽃만 보아도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각각의 꽃들은 나를 보아주세요라고 외치듯 서로 모양이 다르고 향기도 다르다.

즉, 이 테마에서는 로맨틱한 플라워 디자인을 통해 달콤한 꽃향기와 아련히 피어나는 아지랑이의 봄내음을 느끼듯 기분 좋은 곳으로의 작은 여행을 떠나고자 하였다.

<작품7>,<작품11>,<작품12>는 풍성한 꽃 아네모네(Anemone)의 크고 둥근 꽃잎을 이용한 패턴으로 화려한 꽃무늬 나염 타이로 유명한 레오나드(Leonard)(도 5) 넥타이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하였다. 꽃잎의 표현이 섬세한 복고적이면서 우아한 디자인이다.

<작품7>의 특징은 매듭부위는 울오버로 작은 꽃을 배열하고 대검부위에 크고 과감한 꽃을 배열한 독특한 디자인이다.

<작품8>은 서양난의 가는 꽃잎의 가벼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봄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꽃의 유동적 배열자체에서 향기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작품9>,<작품10>은 꽃의 형태를 모던한 그래픽도안으로 바꾼 디자인이다. 바람의 흐름을 표현한 곡선의 사용으로 한층 감각적이다.

<작품11>은 바닥의 밝은 그라데이션 칼라감이 청량감을 주며 맑은 하늘과 떨어지는 꽃잎의 이미지가 정돈된 이미지를 주며, 강연사를 이용한 입체적 스트라이프 조직의 매치로 고전적인 이미지가 강한 플로럴 패턴에 신선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주고자 하였다.



【작품 13】



【작품 14】



【작품 15】



【작품 16】



【작품 17】



【작품 18】

3) 감성으로의 초대 【작품 13~18】

작은 꽃, 유기적인 곡선의 장식의 표현을 통해 우아한 기품을 표현하는 테마로, 빛과 그림자의 효과와 광택감이 중요 포인트로 다단계의 모티브배열이나 레이어링에 의한 볼륨감과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 보이는 투톤효과도 포함된다. 연한 파스텔 톤으로 칼라 감을 강조해 낭만적인 이미지를 주며 모티브의 유기적 배열에 의해서 고급스러움을 더욱 확장 시켰다.

2000년에 들어오면서 ‘네오바로크’라는 이름이 디자인 전 분야에 걸쳐 다시 날개 짓하고 있다. 깎아지른 듯 말끔한 직선과 반듯한 사각형, 완벽한 원이 그려내는 미를 내세운 미니멀리즘의 독재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의 하나가 ‘네오바로크’, ‘21세기 바로크’(도 29)라는 이름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원래 ‘불규칙적인’, ‘특별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바로크’란 단어는 울퉁불퉁하고 개성있게 생긴 진주알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17~18세기의 문화와 미학을 비꼬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런 이유로 ‘찌그러진 진주’라고도 불리고 있다.¹⁸⁾

따라서 화려한 무늬와 수가 놓인 의상과 장식품들이 대표되는 트렌드에 맞춰 우아하고 부드러운 곡선과 장식성을 강조한 스타일이 많은 바로크의 미적 감성이 드러나는 작품 군이다.

아르누보(Art Nouveau)¹⁹⁾적 곡선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꽃 모티브를 이용하기보다 식물줄기의 자연스러운 라인을 기하학적으로 살려준 보테니컬 디자인 그룹이다.(도 6)

<작품13>은 국화의 크고 과감한 표현이 사실적인 느낌을 주며 정원 가득 심어진 탐스러운 국화의 진한 향기를 연상케 하는 패턴.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패턴으로 풍성한 꽃의 표현을 중화시키기 위해 바닥은 어두운 칼라의 깔끔한 샷인 조직으로 마무리했다. 사실적인 국화와 함께 사라사문양을 넣어 고전적이고 동양적인 이미지를

18) Votre majeste'워커힐 멤버쉽잡지 - 박소영 디자인 저널리스트, 독일보훔대학미술사 박사과정)

19) Art Nouveau : '신 미술'이라는 뜻으로 1890년대에 자연주의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를 구사했던 장식미술. 특히, 덩굴이나 담쟁이 등 식물의 형태를 연상하게 하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선과, 파상(波狀)·곡선·당초무늬(唐草文) 또는 화염(火焰)무늬 형태 등 특이한 장식성을 자랑했고, 유기적이고 움직임이 있는 모티프를 즐겨 좌우상칭(左右相稱)이나 직선적 구성을 고의로 피했다.

주고자 했다.

<작품14>은 칼라 면에서 감각적인 그라데이션 경사를 이용한 파스텔 톤 색채를 사용해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주고 아라베스크문양이나 동양의 당초를 연상시키는 무늬와 스트라이프를 혼합해 새로우면서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30대 후반도 수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즉, 판매성에 중점을 둔 디자인으로 밝은 칼라감이 시존에 구애 없이 착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작품15>, <작품16>는 우아한 분위기의 사라사 패턴으로 강연사를 이용한 입체 조직의 사용으로 작은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사람들의 미적 감성과 로맨틱한 감정들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곡선이 장식적이다. 또한 바닥과 사라사줄기의 톤온톤 칼라매치로 눈에 띄는 부담스러움을 줄여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

<작품17>, <작품18>의 배열은 원포인트 패턴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주며 원포인트 패턴의 특성상 두 작품은 40대 후반이후가 타겟이다.

<작품17>은 진달래꽃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작품으로 넥타이의 중심부분에 꽃을 자유롭게 배치함으로써 양복의 단추를 잠갔을 때에는 깨끗한 솔리드 패턴으로 보이고, 자켓을 열었을 때 디자인이 보여 색다른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18>은 일본 기모노의상(도 3)의 이미지를 가져온 패턴이다. ‘A walk in the park’라는 테마의 디자인으로 특히 4월의 꽃,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하얀 빛깔에 취하고 은근히 퍼져오는 향내에 취하여 마음과 몸이 절로 신선 이 되는 느낌을 전하고 싶었다.



【작품 19】



【작품 20】



【작품 21】



【작품 22】



【작품 23】



【작품 24】



【작품 25】



【작품 26】

4. 즐거움으로의 초대 【작품 19~26】

평범한 행복과 사소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편안함에서 영감을 얻은 테마로 햇빛이 좋은 작은 정원의 꽃과 나무속에서 만나는 여유로운 휴식의 달콤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고유한 느낌의 유쾌한 기분, 직관, 즉흥성,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의 초대이며, 자연친화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완벽함의 추구보다는 감성적 측면이 강하다.

즉, ‘내추럴리즘(Naturalism)’을 기본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움으로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디자인그룹을 말한다.

독특한 창의성과 핸드메이드적 수공예의 가치 강조로 풍부하며 자유로운 장식의 테마이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룹이며 입체적 볼륨감의 강연사를 이용한 요루 조직의 활용이 경제하고 유머러스한 감성을 자극하는 패턴 군이다.

<작품19>,<작품20>은 화려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이야기 거리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칼라 면에서는 보수적인 남성악세서리인 넥타이에 강한 원색은 부담스러우므로 바닥칼라는 어둡게 조절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로 풍부한 색감을 만들어 내하고자 하였다. <작품19>는 작은 잎사귀의 표현이 부담스럽지 않은 화사함을 전하는 패턴으로 30대 후반~40대에 이르는 젊은 층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가을날 거리의 낙엽을 소재로 사람들의 로맨틱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디자인이며 잔잔히 넣어준 은사로 고급스러움을 더해 주고자 하였다.

<작품20>는 코스모스를 모티브로 한 잔잔하면서 화려한 패턴. 칼라웨이는 따뜻한 칼라가 마음까지 포근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Yellow gold를 트랜디 칼라로 잡았으며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매듭부위는 단색으로 표현해 판매성을 고려해주었다.

<작품21>은 펜지(Pensees)꽃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전체적 외형은 스트라이프로 배열해서 단조로우면서도 화려한 디자인이다.

모티브는 풍성하면서 꽃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섬세한 무늬를 그대로 재현하여 색감이나 꽃의 모양이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작품22>은 클로버 잎사귀를 모티브로 올오버 배열로 배치해 꽃이라는 이미지보다

하나의 모티브를 이뤄 연령층에 크게 구애 없이 무난한 코디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F/W 시즌에 맞춘 따뜻한 칼라의 Brown을 트렌디 칼라로 선보여 감각적인 분위기로 코디 할 수 있다.

<작품23>,<작품24>,<작품25>은 Clean & Pretty의 컨셉으로 화려한 컬러와 달콤함이 느껴지는 소프트 파스텔 톤이 생동감을 주며 한층 환상적인 이미지를 준다. 꽃의 사이즈를 작게 해서 다양한 연령층을 수용할 수 있는 판매성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하였다. 그린의 향과 올리브나무 사이로 부는 산들 바람, 따스하고 푸근한 나무와 봄의 흙, 꿈을 실은 푸른 하늘빛, 경쾌한 레드, 핑크와 골드의 감미로운 조화를 표현한 디자인으로 달콤한 봄날을 연상케 하여 화창한 푸른 하늘과 싱그러운 풀잎의 향기, 활짝 피어나는 봄꽃의 이미지를 화사한 컬러로 탄생시켰다.

<작품23>에는 독특한 질감을 위해 더욱 다양한 텍스처의 실들이 응용될 수 있으나 현 백화점 마켓의 시장성을 고려해 볼 때 너무 투박하거나 두꺼운 실은 판매성이 떨어지므로 100% 순수 실크사를 기본으로 강연사를 사용해 바닥의 줄기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개성을 살려주었다.

<작품24>는 부드럽고 엘레강스한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작은 꽃의 스트라이프성 배열이 화사하다. 칼라는 싱그러운 봄을 연상케하는 Blue, Pink ,Yellow파스텔 톤으로 30대 후반의 소비자도 감각 있게 코디할 수 있다.

<작품25>의 경우 어느 봄날의 아지랑이를 표현한 디자인으로, 바닥에 자카드로 깔린 앞사귀가 마치 하나의 조직으로 보여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준다. 밝은 Blue, Pink, Green칼라가 신선한 봄의 향기를 전해 주고자 했으며, 경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26>의 컨셉은 '절제된 아름다움(Simplicity)'로 나뭇잎을 모티브로 단순화시켜 세련된 이미지의 작품으로 폭넓은 연령층을 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을 낙엽의 이미지는 조용한 숲 속을 산책하는 듯한 '파크 뷰(park view)'의 정경을 선보여 추억이 어린 가을날을 연상케 하는 시적인 패턴이다. 칼라역시 dark tone의 Orange brown과 Khaki를 사용해 계절감을 살려주었다.

IV. 결 론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못생기고 불품없는 체격을 가졌더라도 제대로 옷을 차려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얘기다. 옷이 신분이나 직위를 표시하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이미지의 시대인 오늘날, 옷 입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듯하다.

즉, 옷은 곧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옷 입기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도, 나쁜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 옷을 입은 지도 100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국 남성들은 여전히 옷 입기에 대해 무관심하며, 소극적이다. 대부분의 남자는 ‘아내가 골라 주는 대로’, 혹은 ‘되는 대로’ 대충 옷을 입는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성격, 습관, 사회적 위치, 개성, 경제상황, 심지어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일 수 있으므로 ‘옷차림도 전략’이라는 한신사복 광고 카피는 그저 흘러들을 소리가 아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 계절이 바뀌어도 한결같이 단벌차림은 아닌가? 사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옷을 매일 달리 코디하기란 평범한 이들에겐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넥타이는 남자들의 슈트 연출에 활력을 주고 스타일을 한층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저렴한 방법 중 하나이다. 스카프나 넥타이등의 악세서리 하나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보보스족, 부르주아, 메트로섹슈얼족 등의 패션 피플들이 등장하면서 남과 다른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넥타이를 연출하는 멋쟁이들이 늘고 있다. 넥타이는 와이셔츠의 단추를 가려주어 남성 육체의 수직성을 강조하는 것 외에 신사복의 엄격함에 고급스럽고 부유한 이미지를 더해주면서 개개인의 개성을, 감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놀라운 재주를 지녔다.

이처럼 넥타이는 패션 소품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남성패션을 완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넥타이는 단조로운 디자인이면서도 유행에 가장 민감한 아이템 중에 하나다. 일반적으로 실루엣의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재와 패턴개발이 그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20세기가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식의 감초역할을 하는 텍스타일 디자인은 미적인 가치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복식조형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패션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소재개발과 패턴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직물의 표현력이 증시되고 있다. 국내 넥타이 시장의 90%이상을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가 점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별화된 컨셉 추구하고 브랜드 고유의 독특한 디자인, 소재 개발로 브랜드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섬유수출 대국으로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꾸준한 기술개발과 기획력, 디자인을 강화하면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어내기 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유행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의 기호도 빠르게 바뀐다. 시대와 문화의 산물인 패션! 하지만, 이제 패션은 시대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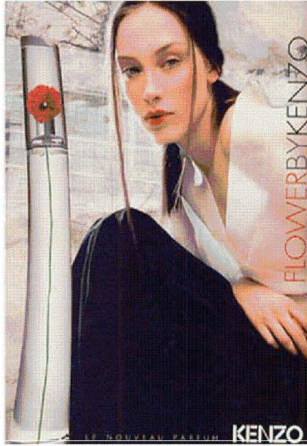
실크사로 제작된 선염은 나염보다 풍부한 표면감으로 넥라인에 볼륨감을 줄 수 있으며 광택이 좋고 원단의 수축률이 적다. 또한 미리 염색한 실을 직조 한 것이므로 앞, 뒤 색이나 무늬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선염의 장점을 살려 디자인을 진행하였으며 소재 면에서도 순수한 실크100%의 월등한 제품을 만들어 내 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시대적 특성과 직물의 장점을 살린 트렌드 분석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현대인들의 소망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감, 작품으로서의 전시가치(value in exhibition), 그리고 실용적 사용가치(value in use)를 동시에 지닌 넥타이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즉, 플라워디자인이 넥타이 패턴으로는 비실용적인 디자인이라는 인식이 강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픈 꾸뛰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조금만 용기를 내면 코디 할 수 있는 상품적 가치를 혼합함으로써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라이프스타일속의 패션소품으로 자리 잡고자 하였다. 특히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은 과감한 플라워디자인을 통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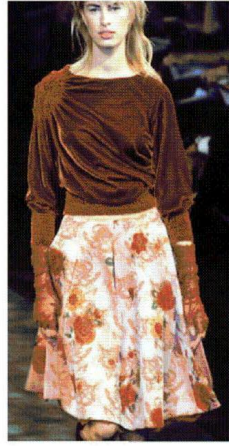
람의 기억 중에 가장 오래남고 영원히 각인 되는 ‘향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은 잊어버려도 그 사람의 향기는 못 잊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향기’라는 컨셉을 내세우고 꽃의 흐름을 담아낸 것도 환상적인 꽃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폭 넓은 공감을 얻어 세계적인 품질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매료시킬 향기로운 꿈을 펼쳐보고자 함이었으며, 넥타이작품의 화려한 컬러와 디자인처럼 우리의 미래가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되길 기대해본다.

참 고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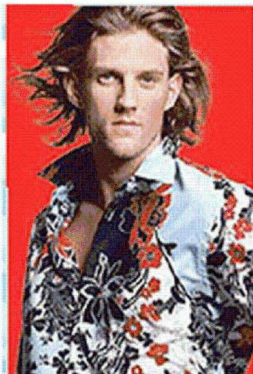
<도 1> 다카다겐조 향수광고



<도 2> 다카다겐조패션쇼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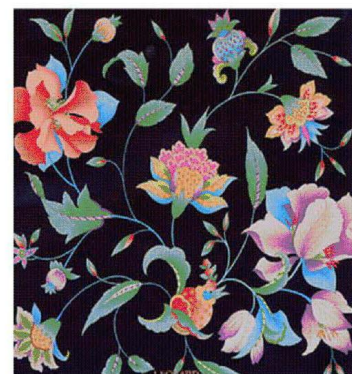
<도 3> 기모노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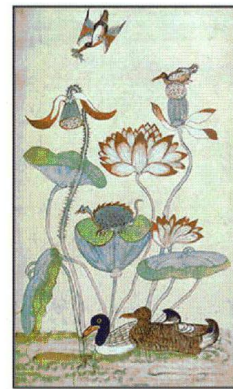
<도 4> 메트로섹슈얼



<도 5> 레오나드 벡타이



<도 6> 보테니컬 디자인



<도 7> 화조화

8 retro romantic moods

20년대의復古적인 情素를 느끼게하는 素朴하고 여성적인 요소가 記된 印刷 Pattern. 20 30년대 Moods에서 영감을 받은 金順환 模티브의 時髦 연속 무늬의 Geometric, Flower Pattern 으로 전개



<도 8> 레트로 무드



<도 9> 꽃사진



<도 10> 정밀묘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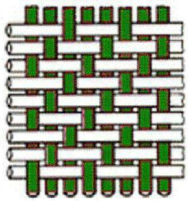
<도 11> 강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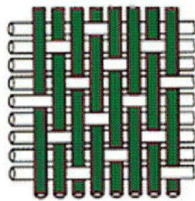
<도 12> 메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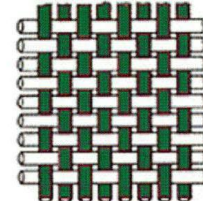
<도 13> 벨벳사



<도 14> 능직(Tw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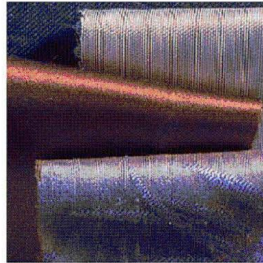
<도 15> 주자직(Sa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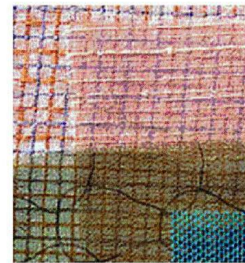
<도 16> 평직(Pl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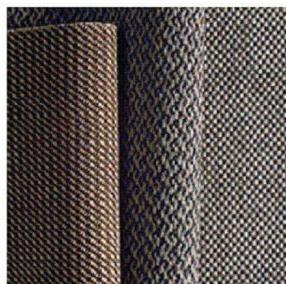
<도 14> 능직(Twill)



<도 15> 주자직(Satin)



<도 16> 평직(Plain)



<도 17> 바스켓직(Basket)



<도 18> 헤링본(Herringbone)



<도 19> All over



<도 20> Dot



<도 21> Str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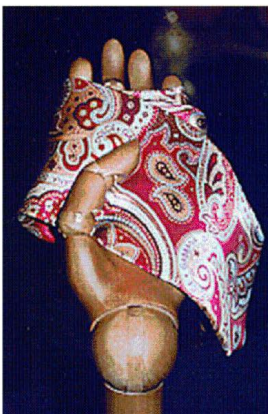
<도 22> Solid



<도 23> One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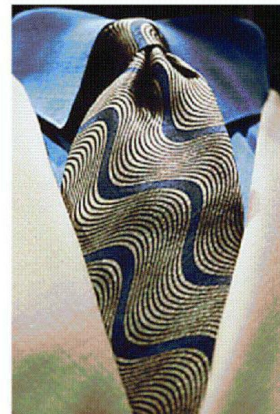
<도 24>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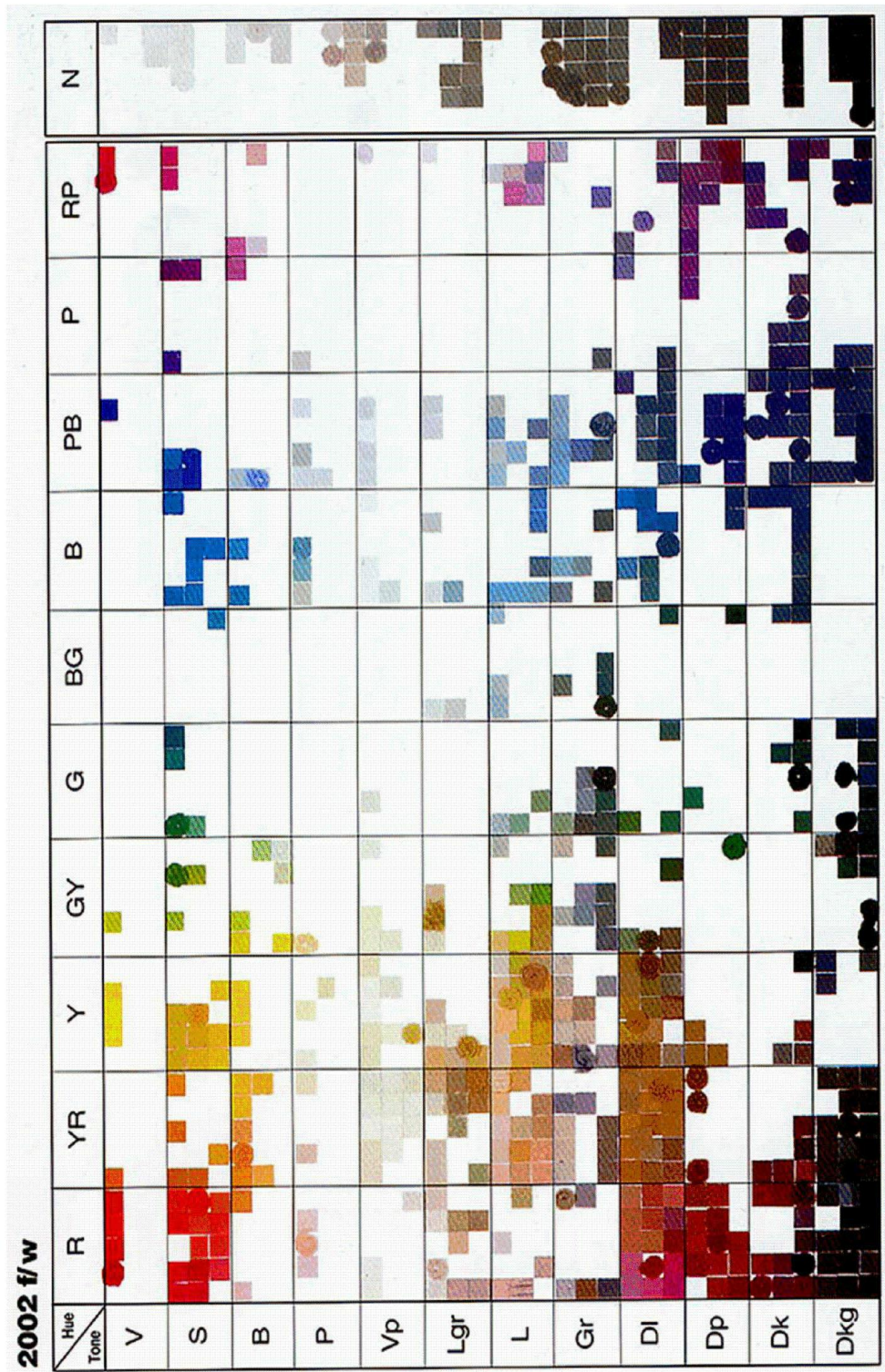
<도 25> Paisley



<도 26> Floral



<도 27> Geometric



<도 31> 2002 F/W 컬러 맵

men's

제안색 2002 F/W
제안색 2002 F/W
제안색 2002 F/W

Item Line	R	YR	Y	GY	G	BG	B	PB	P	RP	N
V	■										
S											■
B											
P		■					■				■
Vp			■								■
Lgr		■	■	■			■	■			■
L		■	■						■		■
Gr	■	■	■	■	■	■	■	■	■	■	■
DI	■	■	■				■				■
Dp	■	■									■
Dk	■	■		■			■	■			■
Dkg	■	■	■	■	■	■	■	■	■	■	■

<도 32> 2002/03 Men's 칼라맵

Y1-90010	PB1-50040	YR4-70025	RP2-20060	R1-30100	PB4-40060	YR4-85020	YR3-50050	P1-20030
R3-40010	Y2-75020	P4-50040	YR3-40060	PB1-50100	YR2-30100	R1-70040	YR1-30040	B1-30040
G4-40040	Y3-60020	YR3-30020	Y2-80060	YR2-50100	R2-60045	Y2-30020	YR2-30010	R4-50060
GY4-30020	PB2-40040	BG2-40020	N-25	YR3-40030	Y2-50060	PB1-60060	NR-35005	BLACK

<도 33> 2002 F/W 제안칼라

참 고 문 헌

저서

- 김동수, 정혜인, 「성공하는 남자의 옷입기」 까치출판사, 1993.
린다 패리, 「직물미술공예운동」 경춘사(울산대 섬유디자인연구실역)
서재행, 「공예염색기법」 미진사, 1991.
심춘섭, 「텍스타일 디자인 표현기법」 아이씨씨프로모션, 1994.
이선화, 「텍스타일 디자인」 미진사, 1991.
전재국, 「남자 옷 이야기2」 시공사, 1997.
토마스 핑크, 마오용, 「넥타이를 매는 85가지 방법」
(Die 85 Methoden, eine Krawatte zu binden)
프랑수아 샤유 「창해ABC북 -넥타이-」 창해(황선희역), 2000.

간행물

- 「LEONARD」 -L'art dans la couture-
「LES PEINTRES DE FLEURS」 -les velins du museum- 1998
「POST」 -NECKTIE- Grand inc.
「SAMSUNG FASHION TREND BOOK」 2002 F/W
패션전문자료사전 KDR한국사전연구소
ELLE, VOGUE, ESQUIRE, NOBLESSE, VOTRE MAJESTE 등 다수 패션간행물

논문

- 강경자, 임지영, 「넥타이의 색과 무늬에 따른 남성복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경상
대 진주전문대, 1996.
강종화, 「어패럴 텍스타일 기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1996.

- 강선영, 「텍스타일 디자인 표현연구」 이화여대, 1995.
- 노윤경, 「자연 이미지 패턴의 스카프 디자인 연구」 성신여대, 2001.
- 노혜경, 「현대 섬유디자인의 형성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1996.
- 박희정, 「한국전통문양을 응용한 스카프 디자인 연구」 성신여대, 2000.
- 방선희, 「꽃의 생태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2001.
- 이선화, 권영숙, 「Baroque직물에 나타난 Floral패턴의 텍스타일디자인 연구」 동주대 부산대, 2002.
- 이인자, 박지영, 「넥타이 업체의 브랜드현황과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1994.
- 어지영, 「꽃과 인체를 통한 자아의 내면 형상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2001.
- 정연자, 「다카다 겐조(Kenzo Takada)의 작품에 관한 연구」 1993.
- 정옥향, 「넥타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1988.

웹사이트

- www.cybercodi.co.kr - 사이버코디네이션
- www.dyetec.or.kr - 한국염색기술연구소
- www.designdb.com - 디자인e비즈니스플랫폼
- www.fashionpia.com - 제일모직
- www.fck.or.kr - 한국섬유패션센터
- www.gm-necktie.com - 지엠인터내셔널
- www.iccademy.co.kr - 토타텍스타일디자인아카데미
- www.ksri.re.kr - 한국견직연구원
- www.ktds.co.kr - 한국섬유디자인연구원
- www.nanet.go.kr - 국회도서관
- www.stdi.co.kr - 서울텍스타일디자인스쿨
- www.textile.or.kr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www.valentine.co.kr - 발렌타인

ABSTRACT

A Study on Textile Design Using Floral Images

- Focus on Tie Designing -

Park. ji Wan
Major in Textile Design
Department 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We are living in the world of varied forms and colors designed by designers. One of unlimited sources for designers is just nature.

Such as a sky, flower, butterfly and sea, natures are the homage (an action to express a respect) for a fashion industry.

Among them, 'flowers' are very glowing throughout a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Everyone who is tired of an endlessly developing science and machine civilization seems to experience desires on returning to the nature.

Sometimes, people can obtain a synergy effect of mood decreased due to a depression, by wearing colorful clothes and accessories of

floral patterns.

This researcher expressed a human nature which desired to return to the nature through a theme of 'Ecology Life (scent of nature) in a necktie with a realistic or abstract pattern, by using the form and image of flowers among natures.

I intended to express a romantic character of individuals with the floral pattern of visual scent not an olfactory scent, by utilizing flowers called as a noun of scent as a motive of design.

I wanted exhausted people to take a rest and to feel happy by forgetting joys and sorrows of life through scent of nature for a while.

I expressed the shape of flower stalk in a soft and luxury image.

I attempted to sublimate the beauty and scent of flowers into enjoyment.

Through this work, I could have an attractive opportunity to express a love on flowers, which were the motive of nature in my life in a variety of manners.

I expect that everyone can express its own unique personality through colorful and splendid floral necktie.